미군, 몰래 탄저균 실험

metro®
메트로 2015년 5월 29일 금요일 제3225호 www.metroseoul.co.kr

'악의 연대기' 박서준

고양이한테 생선 줄라

네이버·다음 뉴스제휴 심사 독립기구 위임
재벌·권력·언론사 이해관계 극복이 관건

포털과 언론사 간 뉴스제휴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심사를 제3의 기구를 만들어 객관성을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아이디어 자체는 창의적이고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이날 낸 제안의 골자는 언론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뉴스 제휴 평가기구인 '(가칭)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제휴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다음측의 뉴스담당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대로라면 의미있고 설득력이 있는 제안이다.

다만 공정성 담보가 관건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언론사와 참여자의 성향에 따라서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에도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있고, 정당에도 여당야당이 있다. 언론기관이 스스로 제휴 언론사를 심사하게 되면 영향력이 강한 언론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미 흘러나온다. 예컨대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언론사의 정치적성향이나 친기업적인 성향에 따라 중소언론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 정당은 선거철만 되면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논한다. 게다가 일부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이나 총수일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대형언론사의 경우 찾아가 광고로라도 기사를 막으려 노력하지만 소규모 언론사엔 우회적으로 포털에 압력을 행사한다. 포털의 주요수익원이 대기업의 광고 매출인 점을 악용해 소위 '나쁜 언론'으로 지정 하는 것이다. 나쁜 언론의 기준도 모호하다. 자신들을 비판하면 나쁜언론이라고 규정한다는 것도 코미디다. 비판이 팩트에 준거하고 사실이라면 독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심지어 최근 독자들은 비판이나 소위 미화시킨 기사를 쓰면 댓글을 통해 "돈받아 처먹었냐", "정황도 없이 빨아대는게 광고성기사네, 기레기다" 등 가감없는 의견을 남길 정도로 내포된 의미까지 파악해 지적 수준이 높다.

또한 아무리 국내 언론을 자본으로 장악하고 뒤흔든다 해도 해외에선 통하지 않는다. 최근 모 업체가 내놓은 상품도 이 같은 논리로 칭찬일색이고 무조건 잘 만들었고 잘 팔린다고 하는데 실제 객관적 지표는 그렇지가 않다. 소위 건전한 비판이 제때에 이뤄졌다면 해당기업도 전략에 변화를 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정치권력이든 재벌이든 서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포털사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압박을 가한다. 평가위원회는 언론기관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평가위 구성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물려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소위 권력의 카르텔이 더욱 탄탄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최근 성완종게이트를 통해 정경유착, 권언유착의 불편한 진실을 여지없이 지켜보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의 이번 제안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더욱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메이저와 중소언론의 적절한 참여에 대한 배분 등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이날 기업과 학계의 지적이라고 말한 악의적 기사, 기사반복 재전송, 동일키워드 반복 등 '어뷰징'기사 또한 사별로 제목과 몇 회 등이 공개되면 이 판단도 충분히 국민들이 할 수 있다. 악의적 기사라고 하는 부분도 시민단체와 교수 등 객관적인 사람이 보고 평가하는 것인지 기업의 일방적 민원인지도 깊이 있게 생각할 부분이다. 소위 광고주로 갑을관계에 있는 '갑' 대기업이 '을' 포털에게 "야 우리 비판하니 나쁜언론이야"라고 우긴다면 '을' 포털은 자본권력의 눈치를 봐야하는 고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제3의 기관에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민의 결과'를 소신 있게 실행해 나가길 기대해본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관련기사 3면>

알림

메트로신문 창간13주년 기념

팡팡 터져라, 애독자 선물 대잔치

"바로 지금, '메친'(메트로신문 홈페이지와 페북 친구)이 되시면 대박 선물을 드립니다."

메트로신문 회원이 되세요. 선물대잔치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친구 독자 여러분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개막일인 5월31일 첫 신문을 발행한 메트로신문이 어느덧 창간1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창간13주년을 기념해 6월12일까지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etroseoulnews)에서 새로 가입한 회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명께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은 한경희제습기와 화장품세트, 신라스테이숙박권, 침구청소기, 공연티켓 등 가족과 연인이 즐겁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앞으로 더 질 높은 컨텐츠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당첨자는 6월 15일 개별 통보합니다.

- 응모기간: 6월12일까지 - 당첨자발표: 6월15일
- 경품내용
  - 한경희생활과학 제습기 1명
  - 머스테브 화장품 6명
  - 더타임테라피/머스테브 화장품 세트 5명
  - 신라스테이 역삼, 동탄 디럭스 숙박권(1박) 8명
  - 한경희생활과학 침구청소기 2명
  - 라츠 헤드셋 10명
  - KFC상품권(3만원) 11명
  - 악극 <봄날은 간다> 6월20일 공연 초대교환권(2매) 7명

metro

미군, 한국서 비밀리에 탄저균 실험해왔다

美국방부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고 발생 후 오산 실험기지 존재 알려져

주한미군이 오산 공군기지에 탄저균 실험 시설을 갖추고 오랫동안 실험을 해온 사실이 28일에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실험장소인 오산기지 내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는 그 동안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국방부는 국내 생화학무기의 실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조차 내놓지 못했다.

오산기지 실험실의 존재는 미국 국방부가 28일 유타 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주한미군 기지로 배송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미국 내에서는 죽은 상태로 배송해야할 탄저균의 배달사고 문제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내 9곳을 제외하고 미국 본토 밖으로 전달된 사례는 현재 확인된 바로 한국이 유일하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에서 논란이 일자 탄저균 표본을 가지고 오산기지의 ITRP에서 배양 실험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지만 감염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험 목적은 밝히지 않았다. 단지 "(이번에 배송된) 탄저균 표본은 오산 공군기지 훈련 실험실 요원들이 훈련하면서 사용했다"고만 했다. 또 "훈련은 정상적인 관리 절차에 의한 정례적인 실험실 규정에 의해 시행됐다"고 밝혔을 뿐 실험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다.

탄저균. /연합뉴스

주한미군은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탄저균 등에 대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부터는 탄저균 예방접종도 해 왔다.

탄저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 침입하면 독소를 생성해 혈액 내의 면역 세포를 손상시키고 쇼크를 유발한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때문에 탄저균은 살아있는 상태로 옮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탄저균 100㎏을 대도시 상공 위로 저공비행하면서 살포하면 100만~3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1메가t의 수소폭탄에 맞먹는 살상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이번에 오산으로 배송된 탄저균의 양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 국방부,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도 미군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산될 수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서울발 보도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CLSA의 숀 카크런 한국담당 책임자는 WSJ에 "합병이 성공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CLSA는 홍콩에 본부를 둔 주식중개 전문회사다. 그는 "제일모직의 지분 4분의 3가량은 삼성가와 이들에게 우호적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물산의 표결은 막상막하가 될 수 있다"며 "특히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나설 경우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도 "이번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저평가됐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된 것처럼 이번 건도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송병형기자

첫 인류는 '루시'만이 아니었다 인류의 가장 오랜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루시)와 동일한 시대(290만~380만년 전)에 살았던 또 다른 인류의 화석이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화석은 루시에 비해 턱뼈가 단단하고 치아가 작다는 점 등으로 미뤄 루시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의미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이어레메다로 명명됐다. /연합뉴스

日 '징용지 유네스코유산 등재' 타협 제의

일본이 일제시대 조선인 강제징용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두고 우리 정부에 타협을 제의했다.

일본 측은 지난 22일 등재 문제를 두고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간 첫 협의에서 우리 측에 "타협 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힌 것으로 28일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종문 외교부 유네스코 협력대사, 일본 측에서 신미 준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일방적 등재를 추진해 온 일본에 대해 "역사는 기억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송병형기자

당정, 제4이통사 탄생 위해 멍석 깔았다

신규사업자 주파수 우선 할당
요금인가제 폐지 재논의할 것

새누리당과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탄생을 위한 멍석을 깔았다. SK·KT·LG 3개 업체의 과점체제에 도전장을 내밀 신규사업자가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쟁촉진 방안의 핵심은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사업자에게는 로밍 의무를 부과하고,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시점을 고려해 접속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왼쪽부터)과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조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 동안 신규사업자의 신청은 쉬웠지만 탈락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당정은 '이번에는 정말 의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본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심사를 엄격히 해 신규사업자의 실패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애초 당정은 이날 25년 간 유지해 온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할 방침이었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다만 인가제폐지로 방향이 잡힌 것은 분명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간사 자격으로 협의에 참가한 박민식 의원은 "인가제 폐지는 이제 시점의 문제"라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황교안법'이 황교안 발목 잡을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두번째 침묵은 용납되지 않을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현재 재산신고 누락과 늑장 납세 등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 청문회에서도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를 계기로 변호사법을 개정했다. '황교안법'으로 불린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당 인사청문특위 대책회의에서 "황 후보자의 침묵이 도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며 "모든 것을 이틀에 불과한 청문기간 밝히겠다고 하는데, 충분한 해명과 자료제출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없는 통과의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황교안법이 만들어졌다"며 "기다리지 말고 충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황교안법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박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 국회 요구가 있을 때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2년간 수임 사건과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는 17개월간의 로펌 시절 수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정경기자 jkljkl@

“뉴스평가 제3자에 위임”

네이버·다음카카오 “독립적 뉴스 제휴사 평가기구 설립”

네이버(대표 김상헌)와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이석우)가 현재 뉴스 정책 개선을 위해 언론계 주도의 독립적인 뉴스 제휴 평가기구를 설립한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스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뉴스 제휴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며 “현재 뉴스 정책 개선을 위해 언론계 주도의 독립적인 뉴스 제휴 평가기구 설립과 이를 통한 제휴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평가위원회 설립 배경에 대해 “언론은 뉴스제휴 평가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다는 비판을 하고 있으며 기업은 일부 매체가 제휴 통과 후 악의적 기사 작성 후 광고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는 새로운 평가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규 뉴스 제휴 심사를 진행하고, △기존 제휴 언론사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하고, △과도한 어뷰징 기사 및 사이비 언론 행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위원회가 포털 뉴스제휴와 관련한 언론사들의 자격 심사를 하게 되면, 양사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뉴스 제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뉴스 유통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초부터 이용자와 언론사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포털이 자율적으로 진행해왔던 뉴스제휴 심사기능과 관련하여 공적, 사회적 책임을 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2014년 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간행물로 등록된 매체는 인터넷 신문사 6000여개를 포함한 1만 8000개의 매체. 이 가운데 약 1000개(중복 매체는 1개로 계산)가 다음카카오·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있다. 양사가 언론사에 뉴스 정보제공료를 주는 제휴 매체는 양사 합쳐 140개매체다. 이에 대해 ‘극소수의 매체들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의견부터 ‘이미 너무 많은 매체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의견까지 양극단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제휴신청에서 탈락되거나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언론사는 뉴스제휴 평가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업은 일부 매체가 검색제휴가 통과되고 나면 악의적 기사를 작성해 광고비를 요구한다며, 포털에 언론사와의 계약해지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학계도 기사반복 재전송, 동일키워드 반복 등 ‘어뷰징’성 기사가 증가하면서 기사 질이 떨어지고 저널리즘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양사는 제휴평가도 언론의 공적인 특성에 준하여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언론계에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구성을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사는 에 언론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등 제반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일임할 계획이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대법 “‘ELS 소송’ 증권사가 배상해야”

대법원이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인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ELS)을 판매한 증권사가 주식을 대량 매도해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증권사에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증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유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도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ELS 투자자 윤모(70)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ELS 중간평가일 거래 종료 직전 기초자산인 삼성SDI 주식을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켜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며 “이는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데도, 이를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정당한 거래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이 사건 ELS와 관련된 ‘델타 헤지(헤지 기간 동안 옵션의 계약 수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헤지 성과를 달성하는 전략적인 헤지 중 한 종류)’ 거래로 삼성SDI 보통주를 매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회피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이 사건은 중간평가일 기초자산 종가에 따라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커서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증권사는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 여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헤지 거래를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야지, 그 반대로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헤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홍원기자 hong@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발대식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시도 서포터즈 대표단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제공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항소심도 패소

法 “소멸시효 지났다”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이승영 부장판사)는 28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3월 4억4천만원대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은 이들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고용된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입었으며 정부와 광주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이 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 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등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2009~2010년 원고 중 2명이 인화학교 학생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정부와 교육당국 등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다수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인화학교에 관해 피고들의 후속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될 소지가 있으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2013년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났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일부 지나지 않았거나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된 부분 등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유선준기자 rsunjun@

메르스 환자 7명으로… 감염 공포 확산

첫 환자, 슈퍼보균자일 수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모두 7명으로 늘면서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의료 전문가들은 아직 3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로 확산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1주일 이상은 추가 감염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권고가 나오는 이유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로 확진된 A(68)씨의 ‘슈퍼보균자’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8일간 메르스로 추가 확인된 6명을 보면 모두 A씨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사람이 6명 모두를 감염시킨 것이다.

현재 보고된 메르스 관련 논문 실제 보건당국의 분석자료를 보면 2차 감염자들 모두가 지난 15~17일 사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4시간가량 A씨와 접촉했다.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슈퍼 보균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다. 다만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을 당시 전문가들은 한 사람이 8명 이상을 감염시킨 경우를 슈퍼 보균자로 분류했다.

문제는 아직 A씨에게서 2차로 감염된 환자가 6명이지만, 사스의 경우 8명 이상의 2차 환자가 발생한다면 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날 김성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메르스는 바이러스의 이종 간 감염이 증명되고, 제한된 범위에서 사람 간 감염이 확인되는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슈퍼 보균자 1명이 8명 이상의 2차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단계에 접어든다면 바이러스의 능력이 바뀌거나 변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국내 확산 여부는 슈퍼 보균자 가능성이 있는 A씨에게서 2차 감염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집중되고 있다.

/이홍원기자

위안부 할머니-박유하 '형사조정' 시작부터 삐걱

檢 조정신청 권고에도 양측 입장 변화 없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7) 세종대 교수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간의 형사조정 절차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검찰이 기소 여부에 앞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 형사조정을 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원만한 갈등 해결이 요원하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권순범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교수와 피해 할머니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가 오는 29일 오후 4시 30분 열린다.

이날 고소인 측 할머니와 법률대리인인 양승봉(법무법인 율)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교수 등 피고소인 측은 내달 3일 따로 참석해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검찰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양측의 입장을 먼저 들은 뒤 조율 가능성이 크면 양측을 만나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정이 고소 취하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 목적으로 박 교수와 피해 할머니 측에 조정 신청을 권고했지만, 조정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도 양측의 입장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박 교수에 대한) 입장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조정을 하는 줄 알았다"며 "어제(27일) 민사재판에 가보니 박 교수 측이 변호인을 두 곳이나 선임하고 준비서면을 108페이지나 준비하는 등 대비를 단단히 해왔다. 반성 의지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세종대 정문 앞에서 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4일. /연합뉴스

앞서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87) 할머니 등 9명은 박 교수가 책에서 자신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했다며 지난해 6월 박 교수와 뿌리와이파리 출판사 정종주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이 소송 재판에서도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은 "박 교수의 사과와 책을 출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라며 "타협 여지를 두고 조정 신청을 수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교수 측은 "피고소인 입장에서 조정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나"며 "검찰이 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한다는 말을 듣고 수락했을 뿐 현재로선 입장의 변화가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서로 합의하라는 취지로 양측에 형사조정을 권고한 것"이라며 "조정이 되지 않으면 고소건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檢 '경남기업 특혜의혹' 김진수 재소환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진수(55·**사진**)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다시 소환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보를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경남기업의 대출·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윗선의 의사가 개입됐는 지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300억여 원 대출을 하도록 하고 같은 해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보는 "국가경제를 고려한 조치였고 전적으로 내 선에서 처리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4월 김 전 부원장보와 함께 시중은행 임원들을 불러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로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도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차 워크아웃 과정에도 금감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어서 김 전 부원장보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이달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연미란기자

'조현아는 무죄'… 의문의 상고장, 법원 접수

27일 중년 남성이 제출 고법 "연관성 소명해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한 중년 남성이 작성한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이 지난 27일 접수됐다.

'땅콩리턴'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상고장 아랫부분에는 정체불명의 남성과 조 전 부사장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물론 이 도장이 조 전 부사장의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당사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낼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조 전 부사장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애초 남성의 이름이 '땅콩리턴' 사건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비슷해 혹시 그의 혈연이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그러나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의 무죄를 주장할 리 없는데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에는 상고할 자격이 없다.

이날 서울고법은 일단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과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날 경우 그의 상고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오는 29일 자정까지 상고할 수 있다. '진짜 상고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홍원기자 hong@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경품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4대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신청하면 40만원 상당의 전기압력밥솥 36대를 지급할 계획이다.

27일 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신규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자동이체로 신청한 사업장이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전기압력밥솥을 경품으로 준다.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하다. 자동이체로 정상 출금되면 1건당 200원에서 250원의 감액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감액혜택은 수수료 절감으로 운영되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200원과 국민연금 230원,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각각 250원 감액된다.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한 번 더 출금되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홈페이지(http://si4n.nhis.or.kr), 공단 지사, 금융기관 등에서 할 수 있다.

/최치선기자

성신여대 융합문화예술대학 'SCAF' 개최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심화진) 융합문화예술대학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성신예술인의 축제(SCAF, Sungshin Convergence Art Festival)'를 개최한다.

5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인 27일에는 오후 3시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무용예술학과의 댄스페스티벌 'ㅊㅜㅁ(춤)'이 열렸다. 지난 달 29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있었던 미디어영상연기학과의 단편영화 상영제를 필두로 한 두 번째 행사다. 다음 달에는 현대실용음악학과의 연주회가 준비되어 있다.

모든 행사는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전석 무료다. 강북·성북구의 복지 프로그램·전공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향후 소외계층이나 관련 전공을 꿈꾸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초청을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송승환 융합문화예술대학 학장은 "올해 네 번째 개최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로 확대 진행하며 연말에 파이널 무대를 가질 계획"이라며 "SCAF는 각각의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협력하여 온전히 자력으로 매년 기획·개최하여 젊음의 끼를 발산하고 진정한 예술을 향한 도약을 보여주는 성장의 무대"라고 말했다.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스카프 공연.

사랑합니다

아껴주고 사랑하고 웃음 넘치는
당신의 아름다운 삶 속에
애경이 언제나 함께 합니다

존경합니다

나누고 손잡아주고 배려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삶을
애경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실물없는 '모바일 신용카드' 전쟁 본격화

카드업계, 연회비 5000원 미만 상품 등 속속 출시

플라스틱 실물없이 사용가능한 모바일 단독카드가 본격 등장했다. 당장 이용 가능한 가맹점과 스마트폰 방식에 따른 제약이 있지만 저렴한 연회비에 발급 시간 축소 등 편의성에 따라 카드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 저렴한 연회비·편의성 강점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모바일에서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카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의 승인 인가에 맞춰 카드를 발급,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하나카드다. 지난 21일 하나카드는 플라스틱 실물없이 사용가능한 모바일 신용카드 '모비원(mobi 1)'카드를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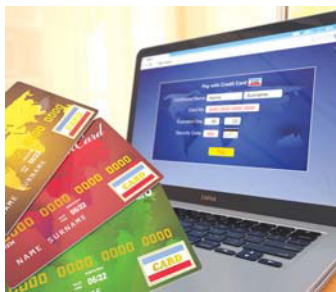
'모비원'은 모바일결제 환경에 최적화된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연회비는 불과 3000원밖에 하지 않는다.

현재 일반 플라스틱 카드의 연회비가 약 1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70%나 저렴한 셈이다.

연간 업계에서 발급되는 카드가 최소 1000만장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매년 수백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하나카드 측은 설명했다.

할인 혜택도 빠지지 않는다.

이는 온라인 결제를 포함한 모든 카드사용액의 0.8% 기본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특화가맹점에서는 기본혜택의 최대 2배인 1.6%가 할인된다.

정해봉 하나카드 사장은 "유심을 기반으로 개발된 '모비원'카드는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핀테크(Fin-Tech)의 진정한 효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앱카드 방식 한정…기존 상품·신상품 투트랙 전략

소비자 선택의 폭도 확대됐다. 신한카드는 실물없이 사용가능한 모바일카드 6종을 발급한다.

카드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사용가능한 앱카드 방식으로 큐브와 나노, 나노f, 홈플러스원 등 신용카드 4종과 S20핑크, 홈플러스원 등 체크카드 2종 등이다.

유심모바일 방식으로는 러브(신용), S20(체크)카드도 선보인다.

다만 유심모바일카드는 금융 유심칩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아이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어 시일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현재 앱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가맹점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빈스빈스, S-Oil, E1 등과 서울 명동지역 200여 가맹점 등 약 2만 여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카드 실물이 없어도 각 카드별로 모든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BC카드는 5월 중 기존 인기상품들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한 모바일 단독카드 신상품을 동시에 출시키로 했다.

상품은 현재 금융감독원 약관심사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여기에는 연회비 2000원짜리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유심(USIM)방식뿐만 아니라 ▲eSE(스마트폰 별도의 IC칩 공간에 카드 정보를 저장해서 거래하는 방식) ▲HCE(가상 클라우딩 서버에서 거래 시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통신해 처리하는 방식) 등 다양한 NFC 모바일카드도 준비돼 있다.

이 경우 각기 다른 스마트폰 사양에 구애 받지 않고 모바일 단독카드를 간편하게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 역시 이달 중으로 모바일 전용카드, '모바이(MO BUY)'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를 많이 하는 젊은 층을 겨냥한 상품으로 연회비 또한 5000원 전후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KB국민카드는 이달 중으로 'KB국민 굿데이 올림카드' 등 기존 상품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단독카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외환은행

35개국 외국통화 환전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외환은행은 28일 전화 한통으로 환전할 수 있는 '원스탑(One stop) 전화로 환전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할 시간이 부족하고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타행 거래고객 포함)을 위한 것으로 환전 국가는 기존 31개국 통화에서 터키와 체코, 폴란드, 헝가리까지 포함한 35개국 통화로 확대됐다.

앞서 외환은행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환전을 신청한 후, 인근 영업점이나 인천공항지점에서 외국통화를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전화로 환전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환전 서비스는 이용상의 편리성 외에도 주요통화(USD, EUR, JPY)의 경우 최대 70%까지 환전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건 별 환전액이 미화환산 300불이상일 경우 해외여행자보험도 무료로 가입된다.

고객은 외환은행 콜센터금융부 대표번호 '1544-3000'번으로 전화를 걸어 'One stop 금융플라자'직원을 요청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외환은행 직원과 직접 1대1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

/백아란기자

KB국민은행, '2015 KB창작동화제' 시상식 개최 KB국민은행이 지난 27일 명동 본점에서 '2015 KB창작동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종규 KB국민은행장(앞줄 오른쪽 여덟 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제공

신한금융 '계열사 시너지'로 신성장 동력 구축

글로벌·은퇴시장에도 관심… 지속적 성과 나올 것

신한금융지주가 'One Customer, One Company'라는 전략 아래 계열사 시너지로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있다.

신한금융이 올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시장은 보육·교직원·공무원 시장 등이다.

보육시장은 은행, 카드, 증권, 생명이 공동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마련한 아이행복카드가 주축을 이룬다. 이미 43만좌 이상의 카드가 신규 발급됐다.

초·중·고 교직원 대상으로는 은행을 통한 교직원 전용 우대대출이 출시돼 있다. 교직원 복지카드 리뉴얼, 교직원 전용보험 상품 출시도 검토 중에 있다.

공무원 복지카드 실시간 결제 시스템과 공무원 우대대출 등을 통해 공무원 금융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시장과 은퇴시장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비은행 사업라인의 진출을 추진하며 해외 시장에서도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을 확대 중이다. 이미 베트남에는 카드가 진출했다. 기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증권업, 생명업, 할부금융 등 은행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퇴시장에서는 '미래설계'로 고객 인지도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은퇴 비즈니스 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후 상품 라인업, 리서치, 대고객 은퇴 교육 등에 있어 그룹사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금융에도 시너지 전략을 모색 중이다.

현재 신차 자동차금융의 전체 시장규모는 약 23조다. 이중 신한카드와 신한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8.6%이다. 신한금융은 가격 경쟁력과 카드의 마케팅 채널을 결합해 협업모델을 격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모델인 서민금융 '허그론'을 개인에서 개인사업자와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1분기 신한금융그룹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0% 증가하며 5921억원을 달성했다. 은행이 3899억원, 비은행계열사인 카드가 1545억원, 금투 488억원, 생명 323억원 등 전 계열사가 고르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은 지주회사 창립 초기부터 그룹사 간 시너지를 강조해왔다"며 "향후에도 경쟁사 대비 더 좋은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지속해서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너지 폭발할까

현대ENG-현대엠코 합병 성공사례 재주목
건설부문 인지도·'바이오' 사업 등 탄력 기대

삼성그룹 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절차에 돌입하면서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의 건설계열사 합병과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지 주목받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 방식은 제일모직이 기준주가에 따라 산출된 합병비율인 1:0.35로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형태다. 이후 제일모직은 신주를 발행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합병회사의 사명은 '삼성물산'이다.

양사는 오는 7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9월 1일자로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이 마무리되면 매출규모 34조원의 초대형 회사가 탄생한다.

먼저 건설부문의 외형이 확대된다. 합병 삼성물산은 리조트, 패션, 건설, 상사 등 4개 부문중 건설부문이 양사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제일모직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경사업과 에너지절감 기술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리조트 설계 역량 유입에 따른 영업력 강화도 예상할 수 있다.

제일모직의 브랜드 마케팅 관리 역량 활용으로 기존 주택 브랜드인 '래미안'의 인지도 상승과 상품성 향상도 기대된다.

삼성이 선정한 신수종 업종인 바이오 사업에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지난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출범에 참여해 각각 46.3%(제일모직), 4.9%(삼성물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두 지분을 합칠 경우 51.2%의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 /뉴시스

앞서 현대차그룹도 지난해 건설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합병회사 사명 현대엔지니어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현대엠코는 현대차그룹의 자동차·제철 등 그룹 공사와 주택 공사에 강점이 있었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석유화학·전력 등 플랜트 설계와 시공 전문 건설업체로 주력 사업이 겹치지 않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합병 후 실적도 급상승했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5조2834억원으로 전년(3조656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중 국내 매출은 2조3892억원으로 871.6%(2조1433억원)나 급증했다. 해외 매출(수출과 해외 법인 매출의 합)도 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8%(9224억원) 늘었다.

국내 건설업체 연간 성적표로 불리는 시공능력 평가에서도 지난 2010년 51위에서 지난해 10위로 41계단 상승했다. 28일 기준 올해 해외수주액도 전년 대비 전년 동기(23억115만 달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49억1729만 달러로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이 성공한 데에는 주력사업이 다른 것이 주요인이었다"며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도 주력 부문이 다른 반면 매출규모는 8배 이상 커 현대엔지니어링보다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같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이 지난해 무산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두 회사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무산됐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한 것.

주식매수 청구금액이란 합병에 반대해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한다. 당시 양사의 주식매수 청구금액은 총 1조6299억원에 달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병의 최대 변수는 주주들의 찬성 동의여부로 삼성물산의 주주 18%가량이 반대하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면서도 "삼성물산의 경우 자사주를 포함해도 지분이 20%밖에 되지 않는 점은 위험요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매수청구권 시한은 오는 7월 16일이다.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하나금융, '그룹봉사리더 발대식' 개최 하나금융그룹이 28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2015 하나금융그룹 봉사리더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 좌측부터)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장기용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금융그룹 제공

롯데건설 '창원 롯데캐슬 더 퍼스트' 내달 분양

롯데건설이 새달 경남 창원시 합성1구역을 재개발한 '창원 롯데캐슬 더 퍼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59~100㎡, 전체 1184가구 규모다. 이 중 68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합성동은 2000년 78가구가 분양된 것을 마지막으로 10년 넘게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던 지역이다. 특히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한 창원시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롯데캐슬' 브랜드라 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아파트는 하이트맥주, 사화협동화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 LG전자 창원공장, STX중공업 등이 인접한 직주근접 입지를 자랑한다. 마산 중심을 관통하는 3·15대로와 마산시외버스터미널, KTX 마산역, 남해고속도로 등의 도로망도 갖췄다.

창원 롯데캐슬 더 퍼스트 조감도.

성균관대학교삼성창원병원이 차로 5분 거리다. CGV, 롯데시네마, 마산야구장, 마산종합운동장, 마산실내체육관,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과 같은 문화·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합성초, 양덕중, 마산중, 구암고가 통학권이다.

롯데건설관계자는 "창원 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기존 마산과 창원의 상권을 아우르는 핵심 입지를 갖췄다"며 "창원에서 처음 선보이는 '롯데캐슬' 브랜드인 만큼,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커뮤니티와 빼어난 조경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6월 중 창원시 회원동 71-8번지에서 오픈할 계획이다. 2018년 3월 입주 예정. 분양문의: 055)222-0070 /박선옥기자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국토부, 2015 전국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

전국 4.63% 상승 ('14년 4.07% 상승)
수도권 3.62% 광역시 5.73% 시·군 6.81%
서울 4.47
인천 2.72
충남 3.46
세종 20.81
대전 2.97
전북 5.76
광주 3.20
전남 5.97
제주 12.46
5.33 강원
2.91 경기
4.89 충북
8.05 경북
6.19 대구
10.25 울산
7.91 경남
5.58 부산
3%미만
3~5%
5~7%
7~10%
10%초과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화장품 판매업체인 네이처리퍼블릭이 입점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명동)로 조사됐다. 이곳의 ㎡당 가격은 8070만원이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 아이파크'로 나타났다. 이곳의 ㎡당 가격은 124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전국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63%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상승폭인 4.07%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며, 최근 6년 동안 최고 상승률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역별 상승폭은 수도권 3.62%, 광역시(인천 제외) 5.7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81%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서울(4.47%)이 가장 높았고 경기(2.91%), 인천(2.72%)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세종시가 20.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12.46%) 울산(10.25%) 순이었다.

이 밖에도 경북도청이 이전 예정지인 경북 예천은 17.60%,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전남 영광은 14.79%의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33), 경기 일산서구(-0.10%), 경기 양주(0.10%), 충남 계룡(0.18%), 경기 파주(0.27%) 순이었다. /김형석기자

배당수익·시세차익… 여름, 배당株 '후끈'

올 배당지수 11.85% 상승
저금리시대 배당수익률 매력
전문가들 "지금 투자할 때"
GS홈쇼핑·LG화학 등 주목

배당투자에 적기인 여름을 맞아 투자자들의 초점이 '배당주'에 쏠리고 있다.

고배당주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여름에 투자해야 배당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서다.

배당주의 경우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약세장에서 주가가 안정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도 배당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편이다. 저금리 상태에서는 일반 예금과 비교해 배당주에서 얻어지는 배당수익률의 매력이 부각된다.

전문가들은 "투자 고수는 여름철에 배당주 투자를 시작한다"면서 "배당으로 얻는 수익은 기본이고 덤으로 시세차익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이 거래현황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배당지수(KODI)는 올해 들어 11.85% 상승해 코스피 지수 상승률(11.27%)을 앞섰다. 코스피200 고배당지수도 올 들어 16.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200 고배당지수는 코스피200 구성종목 가운데 변동성이 낮고 배당수익률이 높은 50종목을 선정해 산출한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고배당주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여름철은 배당주에 투자하기에 적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영준 SK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올 여름은 배당주 투자의 적기"라며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가 올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기업이익이 정상화되면서 25% 안팎의 배당 증가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2005년 이후 고배당지수인 KODI지수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여간 코스피지수 상승률을 웃돌았다"면서 "이는 실제 배당투자와 관련한 투자수요 유입이 6월부터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배당투자는 11월 이후보다 6월부터 시작했을 때 성과가 더 우수했다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고배당주에서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하더라도 투자수익이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당성장주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배당성장주로 이라이콤, GS홈쇼핑, 파라다이스, LG화학, SK가스 등을 추천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신설한 코스피 배당성장50 지수 구성종목을 다음달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배당성장5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삼성카드·한국금융지주·삼성생명·고려제강·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삼성화재·동원F&B 등이 전망된다. 배당성장50 지수는 단순히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아니라 꾸준히 배당이 증가하면서 외형성장도 함께 하는 종목들로 선정돼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하이투자證, VIP 초청 골프대회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27일 경기도 광주 이스트밸리CC에서 'VIP 고객초청 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한 VIP 고객 초청 골프대회는 영업점 VIP 고객과 잠재고객을 초청해 서태환 하이투자증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KLPGA 소속 프로골퍼와 함께 골프 레슨과 동반 라운딩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서태환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우수고객님들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신록이 푸르른 5월에 VIP 골프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항상 감사드리며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하이투자증권이 더 성장해 가는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하이투자증권 제공

사망보험금 지급 후 매월 교육비 별도 보장

한화생명 '교육비 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

한화생명은 부모가 사망 시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자금을 최대화한 '한화생명 교육비 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을 4월부터 판매 중이다.

이 보험은 자녀가 7~22세 시 부모가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후 교육비를 매월 별도로 보장한다. 매월 지급되는 교육비는 초등학생(7~12세)은 가입금액의 2%, 중·고등학생(13~18세)은 3%, 대학생(19~22세)은 4%다.

실질적인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최소 지급보증도 탑재했다. 부모가 자녀 나이 21세에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의 4%에 해당하는 400만원은 4년간 지급한다.

/한화생명 제공

자녀가 22세까지 성장한 후에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금액의 100%인 1억원을 준다.

자녀를 위한 보장성 특약도 다양하다. 충수염, 탈장, 아토피피부염 등으로 입원하거나 골절 진단 또는 재해로 수술했을 때는 '의료보장특약'이 적용된다. 장염 등의 감염 질환이나 편도염, 천식 등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특정질병입원특약'을 보장받을 수 있다. 치과나 안과 질환으로 통원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에도 특약이 보장된다. 부모의 경우 암 진단, 항암약물·방사선치료, LTC보장, 성인병진단, 실손의료비보장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 진단 시에는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다.

최저가입 기준은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료 5만원 이상이다. 가입 연령은 부모 20~62세, 자녀 0~18세다. 35세 남성이 5세 자녀와 함께 20년납으로 주계약 5000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는 10만2000원이다. /윤정원기자 garden@

컴투스 유상증자… 게임빌 '주춤'

증자 참여금 470억원 부담
불참땐 경영권 유지 불투명

모바일 게임업체 컴투스가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컴투스의 대주주인 게임빌이 난감해졌다.

게임빌이 컴투스에 대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470여억원의 추가 출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게임빌은 컴투스 지분을 사들이는 데 이미 상당한 자금을 쏟은 상태여서 또 한 번 고민에 빠지게 됐다.

28일 코스닥시장에서 컴투스는 전 거래일 대비 100원(0.08%) 오른 12만7300원을 기록하며 소폭 반등했다. 컴투스의 모회사 게임빌은 전일보다 2600원(2.57%) 내린 9만8700원에 장을 마쳤다. 컴투스가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후 4거래일이 지난 현재까지 컴투스와 게임빌 주가는 각각 7.01%, 12.65%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컴투스는 지난 22일 장 마감 후 운영자금 1899억8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시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61만주로 현재 총 발행주식(1008만주)의 약 1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컴투스는 유·무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으로 ▲국내외 게임회사 인수 및 투자에 1200억원 ▲자체 모바일 게임 개발에 300억원 ▲글로벌 마케팅 운영자금에 150억원 ▲우량 게임 판권 확보,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마케팅 운영자금 등에 238억원 등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컴투스의 유증 결정에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정호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컴투스는 서머너즈워라는 공전의 히트작을 보유한 이후 RPG 장르에서 추가적인 히트작이 부재한 상황으로 RPG 신작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었다"며 "유상승자는 컴투스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시한 해결책"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게임빌은 자회사 컴투스의 증자 결정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게임빌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주당 0.16주의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40만451주의 신주를 배정받는다. 할당금액은 472억원을 넘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게임빌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90억여원에 불과해 자금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 게임빌은 앞서 지난 2013년 10월 700억원을 들여 컴투스 주식 21.37%를 주당 3만2470원에 인수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장내에서 컴투스 주식 30만주가량을 추가 매입하면서 76억원을 들인 바 있다.

경영권 문제도 얽혀있다. 게임빌이 보유한 컴투스 지분은 24.37%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때 21.1%로 떨어진다.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증자에 참여할 것인지, 자금 부담으로 증자를 포기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게임빌이 컴투스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밝히지 않고 검토 중인 상황에서 컴투스 유증 이슈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게임빌의 목표가를 15만원으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김보배기자 bobae@

Maxim

한잔의 커피는
한번의 여행입니다

여행을 떠나자, 맥심과 함께!

1,000분께 100만원 여행상품권을 드립니다(5/14-6/14)

맥심커피 검색

QR 코드 접속을 통해
참여도 가능합니다

직원 줄여서 억지 흑자… 자리 못잡는 KT

기로에 선 통신산업

한국통신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소비자·통신사·제조사 모두의 불만이 높다. 날로 올라가는 단말기 값과 통신요금에 소비자들은 울상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계속 늘고 있지만 탈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조사들의 상황도 여의치 않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침체된 시장상황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요금 경쟁에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 역시 수익 창출에 고민이 커진 상황이다. 통신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고민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인력감축 통한 실적부풀리기 급급 서비스품질 향상 투자는 뒷걸음질

황창규(사진) 회장 체제의 KT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이다. 장기적인 비전이나 발전방안보다는 인력감축 등을 통한 단기 실적 부풀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대폭 향상됐지만, 이의 상당부분이 직원 대량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 덕분이다. 일반직원은 1년사이 1만명 가깝게 줄었는데 임원 숫자는 되레 늘어났다. 하위직만 쥐어짠다는 불만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목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의 올해 3월 31일 기준 직원수(계약직 포함)는 2만3593명이다. 전년 같은 날(3만2379명)과 비교하면 8786명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1월 부임한 황 회장은 KT의 조직슬림화를 밀어 붙였다.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해 직원 8000명 이상이 회사를 떠났다.

이 결과 KT는 직원 급여를 대폭 줄였다. 지난해 1분기(1~3월) KT의 직원급여 총액(임원 제외)은 5748억3900만원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4518억4100만원으로 낮아졌다. 직원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임금감소분이 1229억9800만원이다.

올해 1분기 KT는 영업이익 3208억69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1363억8100만원) 대비 영업이익이 135.3% 증가했다. KT는 "지난해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와 강력한 기업개선 작업에 주력한 결과 올해 1분기부터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급상승한 KT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말 실시한 대규모 감원에 따른 임금감소분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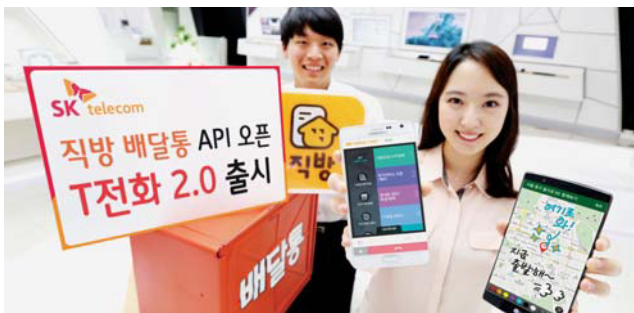
실제 명예퇴직 등으로 절감한 직원급여 1229억9800만원을 제외하면 KT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1% 증가한게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영향으로 줄어든 마케팅비용(2014년 1분기 8127억원→2015년 1분기 7082억원)까지 고려하면 KT의 영업이익은 더 감소한다. 사실상 사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익 강화는 미미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직원 수를 늘린 경쟁업체 SK텔레콤(4254명→4349명)과 LG유플러스(6978명→7276명)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59.5%, 36.9% 상승했다.

황 회장이 수장에 오른 뒤 KT 일반 직원 수는 27.1%가 줄었다. 반면 임원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3월31일 기준 KT 임원(등기임원 11명·미등기 임원 91명)은 102명이었지만 올해 같은 날에는 108명(등기임원 11명·미등기 임원 97명)으로 6명이 늘었다. 머리를 키우고 몸통을 줄인 구조가 되면서 일반직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했다는 눈총이 KT에 쏟아지는 이유다.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경영방식 때문에 고용불안 문제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KT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13년→13.3년)과 LG유플러스(6.9년→7.3년)의 평균근속 연수가 늘고 있는 반면 KT는 지난해 1분기 20년에서 올해 18.5년으로 깎였다.

KT가 직원들을 줄이면서 영업이익을 끌어 올렸지만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올해 1분기 KT는 설비투자에 3557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설비투자금은 3572억원이었다. 2014년 KT의 시설투자 금액은 2조5141억원으로 전년(3조3125억원)대비 약 8000억원 이상 줄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

통화 중 문서·지도 함께 본다

SKT 'T전화 2.0' 출시
배달통 등 앱에 API 오픈 개방형 통화 플랫폼 구현

SKT가 직방·배달통 등 애플리케이션에 API를 오픈해 개방형 통화 플랫폼을 구현한 'T전화 2.0'이 출시된다.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귀에 들리는 음성에만 의지하던 음성통화의 시대를 뛰어넘어, 통화 상대방과 문서와 지도 등을 함께 보며 통화하는 보이는 통화가 가능한 T전화 2.0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T전화 2.0에서는 외부 서비스에 API 오픈을 통한 서비스의 본격 확장을 시도해 명실상부하게 통화 플랫폼의 기능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API란 개발자들이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자주 쓰는 코드를 묶어 놓은 함수의 집합이다. API를 오픈하면 외부 서비스 연동시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대폭 업그레이드된 'T전화 2.0'은 △직방·배달통 등 앱에 T전화 플랫폼 오픈 △통화 중 문서·지도·웹페이지 공유 서비스 △통화 녹음 기능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또 T전화 2.0은 플랫폼을 외부 서비스에 개방해 통화 서비스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부동산 중개앱인 직방과 배달음식 주문 앱인 배달통 등에 API를 오픈해 앱과 통화를 연계하는 최초의 시도를 선보였다.

T전화 이용자가 직방에서 매물을 보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 전화를 걸면, 발신자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수신인(부동산 중개인)은 어떤 매물정보를 보고 전화를 걸었는지 전화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배달통 역시 자신이 주문하고자 하는 메뉴를 보면서 통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화 주문이 더욱 편리해졌다. /정문경기자 hm0108@

아이언맨 입힌 '갤럭시S6 엣지' 완판

통신사 로고 지워 더 인기

갤럭시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사진) 예약판매 물량 1000대가 동이났다. 또한 통신사 로고가 없어 아이언맨 마니아들을 흡족케 할 전망이다.

아이언맨 에디션 예약판매는 28일 새벽 중에 완료됐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가 시작됐지만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됐다.

예약판매 수량은 SK텔레콤 500대, KT 300대, LG유플러스 200대 등 총 1000대다.

삼성전자 스토어에 따르면 SK텔레콤 물량이 가장 먼저 품절됐다.

갤럭시S6 아이언맨에디션은 삼성전자가 마블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1000대 한정판으로 출시한 것으로 어벤져스 시리즈의 아이언맨 슈트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후면에는 금색 아이언맨 마스크와 함께 0001부터 1000번까지 한정판 일련번호가 각인된다.

한편 아이언맨 에디션에서 통신사 로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중국과 홍콩에서도 갤럭시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출시된 갤럭시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은 64GB 용량으로 판매가는 119만9000원이다. 기본 구성품과 함께 아이언맨 상징인 아크원자로 모양의 무선 충전기, 삼성 정품 클리어 커버가 포함된 특별 패키지로 구성됐다.

배송은 내달 1주차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임은정기자 eunj71@

LG '얼음 정수기 냉장고' 美·中 등 9개국서 판매

LG전자가 얼음 정수기냉장고로 글로벌 프리미엄 냉장고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이달 말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인도, 호주 등 총 9개 국에 얼음 정수기냉장고를 8월까지 순차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얼음 정수기냉장고는 824ℓ 상냉장·하냉동 타입 프리미엄 냉장고에 얼음 정수기를 결합한 융복합 제품이다. 정수기와 냉장고를 따로 사용할 때 보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전기료가 준다.

국내에서는 신혼부부 등으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월 최대 판매량이 3000대를 넘는다.

28일 중국 광저우의 한 가전 매장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LG 얼음 정수기냉장고를 구경하고있다.

LG전자는 국내에서의 성공 경험을 글로벌 시장에서 이어갈 계획이다.

LG전자는 차별화된 정수기 기술을 얼음 정수기냉장고에 그대로 담았다. 3단계 안심정수필터는 각종 세균을 비롯해 수은, 납 등 중금속을 제거한다. 스테인리스 저수조를 적용해 물때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했다. /양성운기자 ysw@

메트로신문
창간
13주년

metro

고통없는 세상,

질병으로부터 걱정없는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주말 나도 캠핑 한 번 떠나볼까?" 28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캠핑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날부터 캠핑 페스티벌을 실시하고 의자·그늘막·테이블·아이스박스 등 70여 종의 상품을 싸게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HDC신라, SM과 손잡다

한류 활성화 협약 체결 공연·관련 상품 판매 등

HDC신라면세점의 사업예정지 용산 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제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서울 시내면세점 유치를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과 손을 잡는다.

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합작 면세점 HDC신라면세점은 지난 27일 SM엔터테인먼트와 '한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녀시대·슈퍼주니어·엑소 등 최정상급 가수들이 소속돼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예기획사다.

SM 소속 한류스타들은 HDC신라면세점이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조성하는 4950㎡ 규모의 한류공연장에서 공연과 팬 사인회 등을 하게 된다. 또 면세점 입구에는 '한류스타의 거리'가 조성되며, 한류 스타들의 음반·포스터·캐릭터 상품 등도 면세점에서 판매된다.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는 최근 HDC신라면세점 'DF랜드'를 설립, 쇼핑·관광·식사·숙박이 한 번에 이뤄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HDC면세점 관계자는 '윈스톱 한류 관광'은 중국·일본·대만 등 한류 문화를 선호하는 외국인들의 한국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롯데, 우즈벡 대통령과 투자방안 협의

롯데그룹은 28일 신동빈 회장(사진)이 국빈 방한 중인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만나 현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 회장은 "현재 진출해 있는 롯데케미칼과 롯데호텔 외에도 다양한 롯데 계열사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며 "롯데의 현지 사업 확대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은 우즈벡 국영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등과 합작으로 중앙아시아 최대의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우즈벡 아랄해 인근 수르길 가스전 개발과 석유화학 콤플렉스 신설·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달러다. 2012년 6월 착공해 올해 9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직접 수르길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롯데호텔은 2013년 10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롯데시티호텔 타슈켄트팰리스'를 오픈했다. 기존 타슈켄트팰리스호텔을 위탁경영 하는 방식이다. 2013년 4월 위탁 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롯데호텔의 첫 해외 체인인 '롯데호텔모스크바'와의 교육제휴를 통해 직원 서비스·직무·전산 등의 교육 과정을 거쳐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로 재탄생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세븐일레븐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 구축

SK텔레콤과 MOU 체결

코리아세븐(대표 정승인)은 SK텔레콤과 정보통신기술(ICT)솔루션을 적용한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세븐일레븐이 보유한 우수한 점포 인프라 및 사업역량과 SK텔레콤의 선진화된 ICT기술력을 결합해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 구축·확산, 멤버십 제휴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서울 명동지역 세븐일레븐에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고, 전 매장으로 순차적 확대한다는 나갈 예정이다.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 시범매장에는 △스마트 테이블 △스마트 선반 △미디어 윈도우 △증강현실 △스마트 홍보물 등 5가지 ICT 솔루션이 시범적으로 설치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기존 오프라인 상으로 제공되던 이벤트나 상품정보 등을 편리하고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븐일레븐은 점포 운영에 필요한 고정적인 광고 마케팅 관리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코리아세븐과 SK텔레콤은 다양한 고객 가치 추구형 상품과 우수한 점포 인프라를 활용,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는 "편의점에 앞선 정보기술을 접목해 소비자에게 즐거움과 보다 가치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취지"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GS25, 24시간 통역 서비스 제공

bbb코리아와 업무협약

편의점 GS25가 외국인 고객들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GS리테일(사장 허연수)은 지난 27일 사단법인 통역자원봉사 단체인 bbb코리아와 '언어안심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bbb코리아는 통역 자원봉사자 4600여명이 총 19개 언어를 전화로 24시간 통역 서비스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편의점을 방문한 외국인 고객이 희망하면 점포 경영주나 근무자는 bbb코리아(1588-5644)로 전화해 ARS 음성안내에 따라 통역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bbb코리아 자원봉사자는 외국인 고객들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전화 통역 서비스를 한다.

GS25는 외국인 고객 방문이 많은 점포에 통역서비스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이강철 GS리테일 편의점 마케팅 팀장은 "이번 협약은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고객뿐 아니라 외국인 고객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聯, 네이버와 '소상공인 모바일 지원단' 출범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네이버와 서울 여의도 기계진흥회관 본관에서 소상공인의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업무 협약에 따라 내달 5일 '소상공인 모바일 지원단'을 출범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모바일 지원단'에 맞춤형 교육과 업종별 템플릿을 지원키로 했다. 모바일 지원단은 교육 수료 후 업종별 모바일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한다.

또 네이버는 소상공인이 자사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플랫폼인 '모두'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포털 '소상공인 모두'를 만들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홍보를 위해 많은 지출을 하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모바일을 통해 홍보 비용과 시간적인 어려움 없이 쉽게 소비자와 연결돼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행복주택

매일 아침

자신과 가족을 위해

첫 걸음을 나서는 당신을

행복주택이

응원하겠습니다

집값 걱정에서 벗어나

편리한 교통과 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는 곳,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행복주택에서 시작하세요.

제12회 LH 대학생 광고공모전 금상 수상작 – 이창빈 외 (명지대학교)

"수박·참외 등 제철 과일로 이른 더위 날리세요" 2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이른 더위를 확 잡아줄 수박·참외·매실·자두·살구·포도 등 초여름 제철과일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초여름 제철과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협유통 제공

제과업계 '허니' 덕에 함박웃음

신제품 경쟁 매출로 이어져
오리온·롯데제과·해태 등
국내 스낵시장 규모 25%↑

제과업계가 '허니' 열풍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선방해 '달콤한 성적표'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리온은 올해 1분기 매출 6982억원, 영업이익 12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 27%늘었다. 이는 분기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다. '오!감자 허니시리즈'로 허니시장에 진출한 오리온은 올해 1분기 스낵 판매액이 전년 대비 29.7% 늘었다.

롯데제과는 같은 기간 매출 5479억원, 영업이익 2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3%, 6.2% 늘었다. 이 회사가 지난 2월 선보인 '꼬깔콘 허니버터맛'은 매달 50% 이상 매출이 신장세를 보였다.

크라운제과와 자회사 해태제과는 올해 1분기 '허니버터칩'으로 선방했다. 크라운제과는 매출 2876억원, 영업이익 2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8%, 6.3% 증가했다.

해태제과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2876억원, 2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8% ,86.3% 늘었다. 허니버터칩은 1분기 매출만 184억원을 기록했다.

농심은 같은 기간 매출 5399억원, 영업이익 2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16.8% 줄었다. 라면 품목 매출은 감소했지만 '수미칩 허니머스타드' 등 프리미엄 신제품이 인기를 끌며 매출을 지탱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식품업계에서는 호재를 찾기가 극히 힘든 상황에서 지난해 말부터 허니 시리즈가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 신제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니 과자의 인기에 힘입어 1분기 스낵시장은 큰폭으로 성장했다. 닐슨에 따르면 주요 스낵업체 5개사(농심·오리온·롯데제과·해태제과·크라운제과)의 매출로 본 1분기 국내 스낵시장 규모는 29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50억원)에 비해 25% 늘었다.

업계에선 달콤한 신제품 출시가 잇따르면서 허니 시리즈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20돌' 풀무원녹즙, 누적매출 1조2000억

6억7000만개 판매
올해만 1200억 전망

풀무원녹즙(대표 여익현)은 출시 20주년을 맞은 녹즙이 그동안 약 6억7000만개가 판매돼 매출 1조2000억원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20년간 판매량은 12배, 매출은 14배 증가했다. 녹즙 제품을 일렬(세로 13cm)로 늘어놓으면 지구(4만120km)를 2바퀴를 돌고도 남는다.

대표 제품인 유기명일엽녹즙 한 병(150㎖)에는 명일엽과 케일이 각각 210g(손바닥 크기의 쌈용 기준 30장) 들어가는데 20년간 사용한 명일엽과 케일의 양은 각 14만톤 규모다.

풀무원녹즙이 본격 생산·판매되기 시작한 1995년에는 한해 500만개(86억원)가 판매됐다. 해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며 생산량이 증가, 올해는 6000만개, 1200억원 어치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됐다. 풀무원녹즙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 녹즙 시장 1위를 지키는 요인으로 유기농 원료산지, 생산 공장시설, 전국 유통망과 연구시설 보유 등을 꼽았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씨유, 태극기 1년 내내 상시 게양

전국 8700여 점포서 진행

BGF리테일(대표 박재구)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씨유)가 6월6일 현충일을 맞아 전국 8700여개 점포에 태극기를 게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씨유가 전국 가맹점과 함께 뜻을 모아 시행하는 이번 태극기 게양은 일년 내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달 29일부터 '태극기 예약 주문 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고객이 태극기를 주문하면 사흘 안에 점포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한다.

씨유는 국경일 태극기 달기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SNS에서 '태극기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2~8일까지 본인의 집에 태극기를 게양한 사진과 참여 댓글을 CU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U.BGFreatail)에 남기면 된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아모레 '불공정행위' 檢 조사 위기

특약점 점주에 지위 남용
중기청, 공정위에 고발 요청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사진)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 위반으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이어 검찰에 고발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6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 아모레퍼시픽 등 3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의 법률을 위반한 법인을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이번 요청은 지난해 1월 신설된 의무고발요청권으로 인해 이미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재조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중기청은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엔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고발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특약점 소속 방문 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키는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며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약점은 설화수·헤라 등 고가 화장품을 방문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당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계약을 맺은 방문 판매원이 해당 특약점에서 제공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문판매원이 다른 특약점으로 이탈될 경우 해당 특약점 점주의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시 연매출이 3조원을 훌쩍 넘는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중징계를 예상했으나 과징금은 5억원에 그쳤다. 위반 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했을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구입 강제나 밀어내기 등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산정 기준을 보면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 금액을 결정하는데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억원이다.

아모레퍼시픽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9개월 여 만에 다시 검찰 조사까지 받게된다. 한편 이번 중기청의 결정으로 아모레퍼시픽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벌금형 등 형사 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정기자 ksj0215@

롯데百, 디저트 매장 '파블로' 오픈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이 30일 본점에 250㎡(75평)의 디저트 매장인 '파블로(Pablo)'를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본 오사카에서 치즈타르트로 유명한 파블로가 해외에서 문을 연 것은 롯데백화점 본점이 처음이다. 이로써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에는 20개의 국내외 브랜드로 구성된 디저트 스트리트가 완성됐다. 특히 이번에 들어선 파블로 매장에는 일본에서 파견된 4명의 직원이 한 달간 상주하며 직접 제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파블로의 치즈타르트는 스테이크와 마찬가지로 레어·미디움 등 굽는 정도를 조절해 다른 식감을 맛 볼 수 있다.

페르노리카, 38일 만에 파업 철회

페르노리카코리아 노동조합이 3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노동조합은 지난 27일 노조 총회를 통해 54.3%가 파업 철회를 찬성해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난달 21일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해 3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사는 파업 이후 수 차례의 본교섭을 가지고 지난 2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페르노리카코리아의 현안을 해결할 노사협의기구 설립, 2019년 5월까지 공장 직원 고용보장, 임금 1.8%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조합발전기금으로 지급하는 등이다.

김귀현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조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측에 요구한 현 경영진의 책임, 페르노리카코리아의 현안을 해결한 노사협의기구 설립 등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한미약품 "인재를 찾습니다"

**R&D-제약영업 등 분야
내달 8일까지 온라인 접수**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 www.hanmi.co.kr)이 R&D와 제약영업 등 부문에서 2015년 인재모집을 실시한다.

한미약품은 이번 모집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인재와 신약개발에 도전할 우수 연구인력, 국내 제약영업 담당자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의·약사 면허 소지자는 전 부문에 걸쳐 우대한다.

지난 27일부터 모집에 들어간 이번 인재모집은 오는 6월8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제약영업은 입문교육(1개월)과 심화실무교육(2개월)이 선발 과정에 포함된다. 입사지원은 해당 기일까지 한미약품 채용홈페이지(recruit.hanmi.co.kr)에서 할 수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내성표적 폐암신약 美임상종양학회 발표

내달 2일까지 'ASCO' 참가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 www.hanmi.co.kr)은 이달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미국 시카고맥코믹플레이스에서 열리는 제51회 미국임상종양학회(이하 ASCO)에서 현재 개발 중인 내성표적 폐암신약(HM61713) 임상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비소세포폐암(Lung Cancer-Non-Small Cell Metastatic) 세션에 참가해 내성 폐암환자 195명을 대상으로 HM61713 800mg을 투여해 국내 1/2상(HM-EMSI-101)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할 예정이다.

HM61713은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EGFR 돌연변이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내성표적 폐암신약이다. 기존 치료제(이레사 및 타세바) 투약 후 나타나는 내성 및 부작용을 극복한 3세대 폐암치료제로 평가받고 있다.

/최치선기자

맥심커피 한잔… 일상 속 여행 선물

**'트래블 위드 맥심' 캠페인
구매자 1000명 여행상품권**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다. 나들이철이 되면 샌드위치, 김밥, 컵라면 등 간편식의 인기도 높아지지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은 바로 커피. 언제 어디서나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역시나 '맥심 커피'가 제격이다.

동서식품은 4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소비자 중심의 자세로 새로운 맛을 연구하고 커피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커피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세계 최초 커피믹스 개발에 대한 자부심과 노력으로 동서식품 맥심 커피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커피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 커피 한잔의 휴식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맥심 커피는 '바쁜 일상 속 커피 한잔의 여유로 행복을 찾자'는 의미의 '트래블 위드 맥심(Travel with Maxim)'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커피 한잔이 가져다 주는 여유와 휴식을 통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행을 떠나보길 추천한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트래블 위드 맥심' 캠페인 TV광고에는 맥심 카누와 맥심 모델로 활동중인 공유, 안성기, 이나영이 각기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한잔의 커피는 한번의 여행입니다'라는 주제로 커피가 주는 여유를 즐기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동서식품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맥심 커피 제품을 구매한 고객 1000명에게 여행상품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5월 14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고 있다.

프로모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트래블 위드 맥심' 스티커가 붙어있는 맥심 커피 제품을 구입한 뒤 스티커에 인쇄된 응모번호를 홈페이지(www.travelwithmaxim.co.kr)에 입력하면 된다.

프로모션 대상 제품은 맥심 카누, 맥심 모카골드, 맥심 화이트골드, 맥심 티오피 등 맥심 커피 제품으로 캠페인 스티커가 붙어있는 제품만 해당된다.

동서식품은 프로모션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 1000명에게 100만원 여행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또한 5000명에게는 휴대폰 보조배터리와 영화예매권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6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오렌지 곁들인 홍삼… 아이 입맛에 딱

**롯데칠성음료
'우리아이 홍삼장군'**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 홍삼음료 '우리아이 홍삼장군'(사진)을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아이 홍삼장군은 국내산 6년근 홍삼 농축액과 함께 비타민B2·B3·B6·C 등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을 담았다. 오렌지과즙 20%를 섞어 홍삼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 제품은 자녀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부모들의 깐깐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합성보존료와 합성감미료를 전혀 넣지 않았다. 패키지는 미키마우스·푸우·도날드덕 등을 귀엽게 재해석해 디즈니 캐릭터 '썸썸'(TSUM TSUM)을 적용해 친숙함을 더했다. /김보라기자

英 왕실 근위병, 광화문 지킨다

**영국항공·주한 英대사관
영국 왕실근위병 포토행사**

영국 최대항공사 영국항공 (ba.com)이 주한 영국대사관과 함께 '그레이트 브리튼 왕실근위병 포토행사'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28일 개최했다.

이번 '그레이트 브리튼 왕실근위병 포토행사'는 영국을 대표하는 영국항공과 영국대사관이 공동주최하며, 영국여왕 생일을 기념해 방한한 실제 영국왕실 근위병 2인이 영국항공의 승무원 2인과 함께 한국의 대표 문화지인 경복궁 앞에서 포토행사를 갖게 된 것.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경복궁을 방문하는 시민은 영국왕실 근위병 2인과 영국항공 승무원 2인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영국항공 한국 지사장 에드워드 포더링햄 (Edward Fotheringham) 은 "서울 도심에서 영국 문화의 상징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영국항공은 기내 서비스, 음식부터 디자인과 기술까지 최고의 영국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더욱 많은 한국 고객들이 영국식 환대를 받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트 캠페인 (GREAT Campaign)'은 영국을 무역, 투자, 관광과 교육의 월드클래스 목적지로써 널리 알려 일자리와 성장을 이끌며 영국에 대한 국가적 인지도를 형성하기 위해 영국정부가 시행하는 캠페인이다. /복현명기자 hmbok@

"공연티켓·찰보리빵 드려요"

강강술래 경품 축제

외식문화기업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공연티켓과 찰보리빵세트, 길벗 도서를 증정하는 경품축제를 벌인다.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남기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물로 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폴란드, 천년의 예술' 전시회 티켓(1인2매)을 준다. 쇼팽의 나라로 알려진 동유럽 문화의 중심지 폴란드의 역사와 예술의 변화를 소개하는 첫 대규모 전시회다.

더불어 HACCP시설에서 생산된 안심 먹거리 '보리미 찰보리빵 선물세트'와 '싱글룸 인테리어의 모든 것', '하루에 한동작 허벅지' 등 길벗 도서도 증정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신양관광개발, 한국타이어 비밀통장 노릇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타 총수 일가 100% 지분 보유
내부자금, 계열사 투자금 활용돼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신양관광개발'이 의문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부 자금이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투자금으로 활용돼 신양관광개발이 총수 일가의 '비밀통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신양관광개발이 계열회사로 직·간접적인 소유지분은 없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신양관광개발의 지분 구성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분 100%를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2세들이 보유 중이다. 2014년 12월 기준 장남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이 지분의 44.12%, 차남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32.65%를 차지하고 있다. 장녀 조희경씨는 17.35%, 차녀 조희원씨는 5.88%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역시 총수 일가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2007년부터 신양관광개발은 조 회장과 2세들로부터 장기·단기차입금을 지원 받았다. 2014년에는 조 회장으로부터 연이율 6.5%로 20억원을 차입했다.

신양관광개발 매출의 100%는 한국타이어그룹과의 거래에서 나온다. 신양관광개발의 지난해 연매출은 20억7000만원이다. 이 중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와 거래가 17억9200만원, 한국타이어와 거래가

조양래 회장

장남 조현식 사장

차남 조현범 사장

2억8500만원 상당을 차지한다. 그 전해 매출도 마찬가지다. 전체 매출 19억6700만원 중 한국타이어월드와의 거래가 17억원, 한국타이어와는 2억원 수준이다.

모회사와의 안정적인 거래에도 당기순이익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해 신양관광개발의 당기순손실은 173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기록한 당기순손실 21억8400만원보다 약 9배 급증했다.

이 손실에는 조현범 사장의 투자 실패가 큰 몫을 차지한다. 조 사장은 2006년부터 신양관광개발 자금 일부를 FWS투자자문을 통해 투자에 활용했다. 조 사장이 FWS에 투자일임한 금액은 450억원대. 2013년 계약액인 211억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 2011년 초까지는 수익을 냈지만 그해 여름 유럽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선물·옵션에서 큰 손실을 본 후 아직 원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FWS의 선물투자 실패로 한국타이어 주식이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증권업계에 의하면 한국투자증권 반포지점에서 매물로 나온 한국타이어주식만 30만주, 시가로 120억원에 달해 손실은 수백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국타이어 측은 "신양관광개발은 한국타이어의 용역업체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이번 투자 역시 전적으로 신양관광개발 측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양관광개발 관계자는 "우리 자금인 것은 확실하나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지는 '한국타이어'를 통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타이어에 책임을 미뤘다.

/양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웹젠 '뮤 오리진' 모바일게임 '탈 게임 유통 플랫폼' 트렌드 주도

1세대 온라인 게임 '뮤 온라인'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웹젠(대표 김태영)이 게임 유통 플랫폼에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웹젠이 모바일(카카오톡 등)과 PC온라인(네이버 등)의 게임 유통 플랫폼의 지원 없이 국내 게임 매출 순위 1위에 오르면서 게임 업계에 '탈 게임 유통플랫폼' 사례를 만들어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탈 게임유통 플랫폼'의 시작은 해외 게임인 '클래시오브클랜'이다. 핀란드의 게임사인 '슈퍼셀'은 지난 2013년 '클래시오브클랜'을 한국에 출시해 현재도 한국 시장에서 높은 흥행을 거두고 있다. 2014년에는 넷마블이 네이버와 손잡고 '레이븐'을 출시, 이후 1위에 오를 때까지 4개월간 국내 시장 매출 1위를 독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웹젠의 '뮤 오리진'은 게임 유통 플랫폼을 거치지 않았지만 '레이븐'을 누르고 1위 자리에 올랐다. 이는 웹젠이 '뮤 오리진'을 준비하면서 유통 플랫폼과 게임 유저를 철저히 분석해 준비한 결과다. '뮤 오리진'은 모바일 MMORPG(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로 게임 이용자가 한정됐으며 게임 이용 연령대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 또 캐주얼게임은 약 1~2% 의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과금을 하는 반면, 시장에 안착한 RPG 게임은 평균적으로 약 5% 수준의 이용자들이 게임에 과금을 한다.

또 과금을 하는 게이머들은 보통 20~40대의 구매력이 있는 남성 게이머들로 모바일RPG 이용자의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

캐주얼게임은 폭넓은 이용자 확보가 가능하지만 게임에 과금하는 사용자는 예상보다 적다. 반면 RPG 장르는 사용자 층은 좁지만 능동적으로 게임을 찾아서 즐기는 게이머들이 많고, 과금을 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회원 비중도 높다.

/양성운기자 ysw@

스웨덴이 만든 '왜건명가' 볼보차

전년 동기比 72.2% 성장

캠핑과 낚시, 골프와 자전거 등을 즐기는 레저인구 증가로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과 왜건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힘입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올해 4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총 1412대를 판매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72.2% 성장한 규모다.

사측에 따르면 스웨덴의 자연적 환경은 볼보자동차의 핵심을 이룬다. 스칸디나비아 가구 브랜드 이케아보다 먼저 국내에 발을 디딘 북유럽 브랜드가 볼보차다. 볼보차의 근원지인 북유럽의 라이프스타일은 휴가가 길기 때문에 가족중심의 여가문화가 발달해 있다. 이와 같은 북유럽의 문화적 배경 덕분에 왜건 명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지금에 이르러 가족단위 여가생활을 즐기고자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맞아 떨어지게 된 것이다.

2015년형 XC60. /볼보차 제공

눈과 비가 많이 오는 스웨덴의 기후에 맞춰 개발된 볼보차는 안정감 있는 주행을 추구한다.

△고속주행 시 차량 후미가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쏠려 도로를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는 '다이내믹 스태빌리티 트랙션 컨트롤(DSTC)' △민첩한 코너링을 지원하는 '코너 트랙션 컨트롤 (CTC)' 시스템 등이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

스웨덴은 사람을 가장 우선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사람 중심의 철학은 볼보차의 안전 헤리티지에 영향을 미쳤다.

볼보차는 2020년까지 교통사고 중상자와 사망자가 없도록 하는 비전2020 목표를 세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사고 예방과 보호 등 다양한 안전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볼보차는 세계 최초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했다. 또 시티 세이프티와 더불어 보행자 추돌 방지 시스템과 보행자 에어백, 자전거 추돌 방지 시스템 등을 개발해 차량 탑승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이정필기자 roman@

SK이노베이션 "2018년 기업가치 30조원 목표"

SK이노베이션은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사업의 구조적 위기 돌파 전략을 밝혔다.

정철길(사진)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수익, 사업구조 혁신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현재 11조원인 기업 가치를 2018년까지 30조원대로 키우고 글로벌 톱 30위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 사장은 중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저성장에 따른 수요 감소, 셰일 혁명과 글로벌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사의 생존이 가능한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유 부문은 원유도입 다각화 등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석유개발 부문은 생산성을 높여 수익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용기기자 yonggi@

"벌써 세번째 관람, 볼 때마다 새로워요"

배우 박서준(27)은 '따뜻한 말 한마디' '마녀의 연애' '킬미힐미' 등 여러 편의 드라마를 통해 주목받았다. 그동안 안방극장에만 얼굴을 비췄지만 최근 영화 '악의 연대기'(감독 백운학)의 차동재 역으로 스크린에 데뷔했다.

'악의 연대기'로 스크린 신고 박서준

◆ 배우 그리고 관객

단순히 드라마와 영화로 구분 짓지 않아도 '악의 연대기'는 그에게 여러모로 특별한 작품이다. 많은 작품이 선과 악의 대립을 그리지만 '악의 연대기'는 그 경계를 뚜렷하게 나누지 않는다. 오히려 주인공 최창식(손현주)이 살인을 저지르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제가 출연한 영화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심야로 한 번 더 보고 왔어요. '악의 연대기'를 지금까지 총 세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달라요. 언론시사회를

> 첫 작품인 만큼 냉철히 평가
> 관객 입장서 보려고 노력
>
> 손현주 등 男선배들과 호흡
> 女배우들과 달리 편한 느낌도
>
> 곧 '뷰티 인사이드'로 인사
> 또 다른 모습 보여줄게요

통해 처음 봤을 땐 관객의 입장에서 보고 싶었어요. 제가 나온 영화니까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그런 시각을 배제하고 보려고 노력했더니 느껴지는 게 많더군요."

대부분의 영화 팬이 그러하듯, 박서준 역시 좋아하는 영화는 여러 번 관람하는 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악의 연대기'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첫 작품이니만큼 냉철한 평가가 필요했다.

"두 번째 관람했을 땐 제 연기 위주로 봤어요(웃음). 어떻게 했는지 좀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어제 밤에 본 게 세 번째죠. 근데 또 새롭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제 연기를 포함해서 흐름상 놓쳤던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제 연기가 완벽할 수 없었듯 모든 게 완벽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참 신기한 게 다들 같은 영화를 봤지만 접근하는 시각은 제각각인 것 같아요."

◆ 선배들과 함께

드라마에선 주로 여배우와 호흡을 맞췄다면 이번 작품에선 배우 손현주, 마동석과 같은 남자 선배들과 함께했다.

"사실 조금 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성과 동성은 다르잖아요(웃음). 또 선배들이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셨고요. 전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제 역할을 잘 소화해야 작품의 균형이 깨지지 않으니까 부담이 컸죠. 잘 하려면 주눅 들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선배들이 곁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전 제 첫 영화니까 나름 준비를 많이 해서 갔어요. 근데 만약 선배가 '야, 그거 보단 이게 낫지'라고 말씀하면 분명 혼란스러워 했을텐데 선배가 '잘하고 있다'며 지켜봐주셔서 그게 자신감이 됐어요. 저도 나중에 선배가 되면 후배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웃음)."

그는 앞으로 어떤 배우, 어떤 선배가 되고 싶은지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단순히 반짝 스타가 아닌 배우로서 오래 호흡하고 싶은 그의 소망이 엿보이는 대목이었다.

"'악의 연대기'가 먼저 개봉했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영화 '뷰티 인사이드' 촬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차기작이 되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건 없어요. 드라마도 계속 해야죠. 작품을 선택할 땐 항상 조금이라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맡으려고 해요. 그게 연기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star bag

자선음악회 '사랑의 메아리' 진행

가수 **간미연**이 오는 29일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암사재활원앞마당에서 열리는 암사재활원 제6회 자선음악회 '사랑의 메아리' 진행을 맡는다. 행사는 1부 먹거리마당, 2부 음악회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29일 암사재활원 앞마당에서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열린다. 공연은 7시부터다. 티켓은 1매 1만원.

결혼 후 첫 작품 '디데이'

배우 **김정화**가 결혼 후 첫 복귀 작으로 JTBC 드라마 '디데이'를 선택했다. 극 중 정신건강과 전문의 은소율 역을 맡았다. 김정화는 "은소율은 외유내강 캐릭터"라며 "드라마 컴백과 함께 데뷔 후 처음 의사 역에 도전한다. 변신을 기대해달라"고 각오를 전했다.

'후아유' 스태프에 통큰 선물

배우 **김희정**이 KBS2 월화극 '후아유-학교2015' 스태프에게 운동화 180켤레를 선물했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김희정 마음 씀씀이에 현장 관계자들 모두 힘을 내 촬영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희정은 극 중 이은비(김소현) 절친 차송주 역을 맡아 톡톡 튀는 매력으로 극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너를 기억해' 완벽 연기 변신

배우 **장나라**가 KBS2 새 월화극 '너를 기억해'에서 엘리트 수사관 차지안으로 분해 똑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공개된 사진에서 장나라는 머리를 질끈 묶고 총을 들고 있다. 날카롭고 긴장감이 느껴지는 눈빛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오는 6월22일 첫 방송된다.

새로 나온 책

시크릿 캣-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레이/조덕희·김원명 지음

'시크릿 캣-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일상을 개성 있는 일러스트로 표현한 안티스트레스 컬러링북이다. 고양이와 함께 하는 일상의 모습들을 다양한 일러스트로 담았으며 각각의 페이지를 색칠할 수 있다. 답답하고 따분한 일상의 나를 잊게 되는 독특한 힐링의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트렁크

창비/김려령 지음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 등의 베스트셀러를 쓴 김려령 작가의 새 장편소설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를 지나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신조어들이 난무하는 지금, 소설은 '기간제 부인' '출장 결혼' 등의 가상적인 설정으로 어떤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결혼 이야기를 풀어냈다.

아이와 나

북노마드/사카베 히토미 지음

'아이와 나'는 일본에서 건너와 한국인 남편과 가정을 꾸린 미술작가 사카베 히토미가 1년 동안 딸아이 J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그림일기다. 저자는 자연스러운 일상 속 딸아이의 말과 행동,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순간의 아름다움을 1년 동안 그림으로 그렸다.

나의 할아버지가 탈옥한 이야기

51북스/옌거링 지음·김남희 옮김

중국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옌거링의 최신작이다. 계모와 아내 사이에서 자유를 갈구하다 대초원에 유배된 지식인 루옌스가 1921년부터 1990년까지 겪은 긴 일대기를 손녀가 받아 적은 구성으로 중국 근대사의 한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5일의 마중'의 원작이다.

한국이 싫어서

민음사/장강명 지음

사회 비판적인 문제에서 SF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소재와 흡인력 있는 스토리,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한국 문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작가 장강명의 장편소설이다.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이 회사를 그만두고 호주로 이민 간 사정을 대화 형식으로 들려준다. 이민이라는 모험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가수·프로듀서 '찰떡 궁합'의 좋은예

EXID-신사동호랭이, 빅뱅-테디, 김성규-김종완, AOMG-그레이 성공사례

EXID

가수가 인기를 얻기 위해선 뛰어난 가창력만으론 부족하다. 가수의 음색과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맞춤옷' 같은 노래가 뒷받침 돼야 한다. 널리 사랑받는 인기곡을 만들기 위해선 가수의 특성을 이해하고 노래를 만드는 프로듀서의 손길이 필요하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 EXID-신사동호랭이

궁합지수 ★★★☆

지난해 '위아래'로 역주행의 아이콘이 된 걸그룹 EXID. 이들은 '위아래'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신사동 호랭이와 손 잡고 지난달 '아 예(Ah Yeah)'를 발표했다.

신사동 호랭이는 "'위아래'나 '아예'는 장르가 비슷하다. 마이너틱한 후렴구와 힙합 느낌이 나는 노래다. 대중에게 EXID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만든 노래가 '아예'"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계속 이런 노래만 만들 것이냐고 묻는데 그건 아니다. 가수에게 가장 잘 맞는 색깔을 잡으면 그걸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 EXID 역시 여러 노래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위아래'만큼 대중들에게 각인되진 못했다"고 말했다.

◆ 빅뱅-테디

궁합지수 ★★★★

3년 만에 컴백한 빅뱅은 신곡 '루저(LOSER)'와 '배배(BAE BAE)'로 차트를 휩쓸었다. 이번 앨범 역시 전작과 마찬가지로 YG 소속 프로듀서 테디가 함께했다.

이에 대해 지디는 "앨범을 만들 때 조금이라도 방향성을 잃고 우왕좌왕하면 테디 형이 잡아준다"며 "다른 프로듀서와 작업할 의향은 물론 있다. 실제로 다른 분들과 호흡을 맞춰봤지만 우리에겐 테디 형이 가장 잘 맞는다. 우리 장점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게 바로 호흡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양 역시 "유명한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색깔을 잘 이해하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좋다. 그게 바로 테디 형"이라고 말했다.

빅뱅

김성규

◆ 김성규-김종완(넬)

궁합지수 ★★★☆

인피니트 김성규와 넬의 김종완이 만났다. 김종완은 평소 자신을 따르던 후배 김성규를 위해 그의 두 번째 솔로 앨범 '27' 전곡 프로듀싱을 맡았다. 김종완이 다른 가수에게 곡을 준 적은 있어도 앨범 전체를 프로듀싱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처음이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조합이다.

일부 팬은 넬의 느낌이 강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이번 앨범은 인피니트의 성규가 아닌 솔로가수 김성규의 색깔이 확실히 드러난다. 특히 타이틀곡 '너여야만 해'는 인피니트 팬과 넬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평가다.

◆ 박재범·로꼬(AOMG)-그레이

궁합지수 ★★★★☆

노래 도입부에 프로듀서 이름을 넣는 것은 박진영의 'JYP'가 시작했지만 최근 차트 상위권을 차지한 노래는 '그레이'로 시작한다. 힙합 레이블 AOMG 소속 프로듀서 그레이는 자신의 곡은 물론 로꼬, 박재범 등 소속 아티스트의 노래를 만들며 차트에서 승승장구 중이다.

AOMG 노래가 세련된 사운드로 힙합 팬을 사로잡을 수 있던 데는 그레이의 공이 크다. 그는 흑인 음악이라는 장르 안에서 각자에게 어울리는 사운드를 뽑아내는 데 능숙하다. 지난달 발표한 자신의 신곡 '하기나 해'가 자전적인 가사와 세련된 비트를 앞세웠다면, 로꼬의 히트곡 '감아'에선 로꼬의 래핑과 크러쉬의 보컬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잔잔한 사운드를 만들었다.

그레이

기 꺾인 탐사 프로그램에 '날개' 될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31일 첫방

이규연(사진) JTBC 탐사 기획국장이 스타 진행자 위주의 탐사 프로그램에 일침을 가했다.

28일 상암동 JTBC 사옥에서 열린 JTBC 정통 탐사 기획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발표회에서 이 국장은 "국내 심층 시사 프로그램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예능화 되지 않으면 시청률을 유지할 수 없다 보니 시사 프로가 예능처럼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통 탐사 프로그램도 취재 활력을 잃은 것 같다. 진행자가 연예인인 게 시대 흐름이고 제작진도 그 흐름에 기가 꺾여 있다"며 "나는 시사 탐사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싶다. '스포트라이트'는 시청자 눈길도 끌고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을 찾는 게 지향점"이라고 소개했다.

'스포트라이트'는 앞으로 존속 살해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의 관련 이야기,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 실태, 전자발찌에 대한 맹신, 유명 화가·목사의 불법 치료 현장을 차례로 방송한다.

이 국장은 "가출 청소년의 경우 예전에는 자물쇠로 청소년을 가뒀다면 지금은 심리적 감옥 안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더라. 또 전자발찌 문제도 언론에선 강화만 방안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맹신하면서 초래될 함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다를 것"이라고 관전포인트를 설명했다. 31일 오후 8시 40분 첫 방송. /전효진기자 jeonhj89@

metro

메트로신문 창간 13주년

대학이 바뀝니다.
사람이 변화합니다.
미래로 향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생각과 도전이 창조와 혁신을 만듭니다.

TV 주말 하이라이트

네 남녀의 엇갈린 마음, 어디로 갈까

◆ KBS2 '프로듀사' 금요일 오후 9시15분

'일시적 주소 공유'라는 형태로 묘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25년 지기 탁예진(공효진)과 라준모(차태현) 사이에 백승찬(김수현)이 끼어든다.

남동생까지 셋이 함께 살고 있다는 예진의 말에 승찬은 "남동생이 외박을 하면 예진과 준모 둘만 있게 되는 것 아니냐"며 동거에 반기를 든다. 결국 승찬은 만취를 핑계로 예진과 준모의 집에서 잠이 든다. 예진은 승찬에게 준모의 속 마음을 알아내라는 임무를 내린다.

패기 넘치는 신입 PD 승찬에게 호감을 느낀 신디(아이유)는 소속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박2일' 출연을 감행하지만 촬영도, 승찬의 마음도 모두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해한다.

네팔 대지진, 그 이후

◆ JTBC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토요일 오후 9시 50분

네팔 여행기 마지막 편이 방송된다. 지난주에 이어 네팔 국가대표 운동선수인 수잔의 친구들과 대결을 펼친다. 수잔의 친구들은 그의 연애사를 폭로해 수잔을 당황하게 만든다. 친구들과 고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수잔은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네팔에서 대지진이 발생하고, 수잔은 마크와 다시 네팔에 찾아가 가족과 눈물의 상봉을 한다.

/정리=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 tvN 금토드라마 '구여친클럽'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방명수(변요한)의 구여친들로 인해 조건(도상우)과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된 김수진(송지효).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명수는 구여친들에게 화를 낸다. 구여친들이 "수진을 대하는 태도가 처음과 달라졌다"고 말하자 명수는 "친하기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이를 들은 수진은 반복되는 상황에 지쳐간다.

◆ MBC '나 혼자 산다' 금요일 11시 10분

치타, 맹기용, 예정화가 솔직하고 털털한 20대의 싱글 라이프를 공개한다. 래퍼 치타는 다소 강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화장을 지운 '순둥이' 민낯을 보여주고 자취 10년 베테랑다운 요리 솜씨도 뽐낸다. 훈남 셰프로 알려진 맹기용은 집에선 못생긴 허당남으로 변신한다.

◆ MBC '무한도전' 토요일 오후 6시 25분

'극한알바' 해외 편이 방송된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탄광, 63빌 유리창 청소 등 국내서 극한 직업에 도전한 바 있다. 포상 휴가인줄 알았던 이들은 해외판 '극한 알바'란 사실에 몸서리친다. 유재석-황광희, 박명수-정준하, 정형돈-하하로 팀을 이뤄 세 개 국가로 흩어진다.

◆ SBS '정글의 법칙 in 얍' 금요일 오후 10시

미크로네시아 제도에 위치한 얍으로 떠난 병만 부족의 첫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얍은 원시림과 풍부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바다에 둘러싸인 섬으로 돌이 돈처럼 쓰이는 독특한 곳. 배우 박한별과 걸그룹 씨스타의 다솜이 '정글여신'으로 함께 떠난다.

◆ MBC 주말드라마 '여왕의 꽃' 토요일 오후 10시

서유라(고우리)는 병원에서 강이솔(이성경)과 박재준(윤박)이 껴안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유라는 이솔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며 분노를 표출한다. 이솔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재준은 유라를 말리고, 유라는 재준에게 서운함을 느낀다.

◆ MBC '일밤-복면가왕' 일요일 오후 4시 50분

제 3대 복면가왕 딸랑딸랑 종달새(가수 진주)를 꺾고 새 복면가왕을 차지하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에 대적할 만한 실력자가 나온다. 만약 새 복면가왕이 탄생하면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의 정체가 밝혀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EBS1	JTBC
30일 (토)	13시 00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15시 00 특집 다큐 행복한 결혼식 17시 10 동물의 왕국 18시 00 동행 19시 10 다큐 공감 20시 00 한국경제 70년 그들이 있었다 21시 40 징비록 (31회) 22시 30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0시 00 콘서트 7080	12시 30 개그 콘서트 (재) 14시 05 슈퍼맨이 돌아왔다 15시 45 프로듀사 (재) 18시 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시 55 파랑새의 집 (29회) 21시 15 프로듀사 (6회) 22시 35 연예가 중계 23시 45 인간의 조건-도시농부 (2회) 0시 55 오렌지 마말레이드 (4회) (재)	12시 10 맨도롱 또똣 (재) 13시 50 MBC스포츠 2015 KBO리그 17시 00 우리 결혼했어요 18시 25 무한도전 (430회) 20시 45 여자를 울려 (13회) 22시 00 여왕의 꽃 (23회) 23시 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0시 35 경찰청 사람들 2015 (재)	12시 10 풍문으로 들었소 (재) 13시 50 2015 프로야구 삼성:LG, 잠실 / (2안) 17시 00 오!마이 베이비 18시 25 놀라운대회 스타!킹 20시 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시 00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13회) 23시 10 그것이 알고 싶다 0시 10 2015 드림콘서트	12시 00 최고의 요리비결 (종합 1~5) (재) 15시 50 청춘! 세계도전기 (재) 16시 45 세계의 눈 17시 50 장학퀴즈 (954회) 18시 40 한국기행(종합 1~2) (재) 20시 15 다문화 고부 열전 (재) 21시 0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종합 1~3) (재) 22시 35 장수의 비밀 (재) 23시 05 세계의 명화 <스타워즈 : 제다이의 귀환>	13시 20 유자식상팔자 (103회) (재) 14시 35 크라임씬 2 스페셜 (8회) 16시 05 냉장고를 부탁해 (28·23회) (재) 18시 40 사랑하는 은동아 (1회) (재) 19시 55 JTBC 뉴스룸 20시 40 사랑하는 은동아 (2회) 21시 5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17회) 23시 00 엄마가 보고있다 (6회) 0시 40 김제동의 톡투유 스페셜 (4회)
	KBS1	KBS2	MBC	SBS	EBS1	JTBC
31일 (일)	12시 10 전국노래자랑 13시 20 스카우트 2 14시 10 KBS 슈퍼클래식 16시 10 징비록 (31회) (재) 18시 40 열린 음악회 19시 10 도전 골든벨 21시 40 징비록 (32회) 22시 30 역사저널 그날 23시 20 취재파일 K	11시 55 복면검사 (4회) (재) 13시 10 프로듀사 (6회) (재) 14시 20 파랑새의 집 (재) 16시 50 해피선데이 (543회) 19시 55 파랑새의 집 (30회) 21시 15 개그 콘서트 (798회) 22시 55 다큐멘터리 3일 23시 55 스타일 포 유 (9회) 0시 55 이웃집 찰스 (재)	12시 10 출발! 비디오 여행 13시 15 화정 (13회) (재) 14시 25 화정 (14회) (재) 15시 45 섹션 TV 연예통신 16시 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20시 45 여자를 울려 (14회) 22시 00 여왕의 꽃 (24회) 23시 15 시사매거진 2580 0시 05 라디오스타 스페셜 / (2안)	12시 10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13회) (재) 13시 15 가면 (재) 15시 40 SBS 인기가요 16시 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시 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시 00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14회) 23시 10 SBS 스페셜 0시 10 썸남썸녀 (재)	11시 4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2시 30 극한 직업 (재) 13시 20 명의 (재) 14시 15 일요시네마 <슈퍼맨 2> 16시 45 세계의 눈 17시 35 세계 테마 기행 (종합 1~4) (재) 20시 15 EBS 다큐 프라임 (종합 1~3) (재) 23시 00 한국영화특선 <미술관 옆 동물원> 0시 50 창고 지킴이, 도토리딱따구리	13시 20 썰전 (117회) (재) 14시 40 비정상회담 (47회) (재) 16시 1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17회) (재) 17시 25 사랑하는 은동아 (1·2회) (재) 19시 55 JTBC 뉴스룸 20시 4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회) 21시 45 김제동의 톡투유 (5회) 23시 00 닥터의 승부 (177회) 0시 20 마녀사냥 (94회) (재)

두산·NC 벤치클리어링… 장외포에 선루프 박살

스포츠 주간 해프닝

해커-오재원 흥분 결국 벤치클리어링

27일 창원에서 열린 2015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 경기에서 벤치클리어링이 발생했다.

NC가 7-1로 앞서가던 7회초 공격에서 NC 선발투수 에릭 해커와 두산 오재원의 신경전이 도화선이 됐다. 선두타자로 나선 오재원은 해커가 투구 자세를 잡고 공을 던지기 직전에 타임을 신청했다. 주심은 오재원의 타임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해커는 공을 포수 위로 던지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규정상 투수가 와인드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면 타자의 타임 요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되지만, 국내 프로야구는 심판에 따라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해커는 당시 오재원의 행동이 투구 밸런스를 깨트리는 꼼수라고 생각하고 민감하게 했다.

다만 해커의 반응도 과했다. 해커는 오재원을 1루수 앞 땅볼로 처리한 뒤 벤치로 들어가려던 오재원의 등 뒤에 대고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당시 해커의 발언은 "Get in the box(벤치로 들어가)"로 알려졌다.

오재원은 해커의 발언을 듣자마자 크게 흥분했다. 이미 아웃되고 벤치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비아냥 섞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선수는 고성을 지르며 충돌 직전까지 갔고 양팀 선수들도 우루루 쏟아져나오며 벤치클리어링이 벌어졌다.

벤치클리어링에서 흥분한 두산 홍성흔과 NC 테임즈. /연합뉴스

윤석민 장외포에 선루프 차량 박살

27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이날 넥센은 대구 원정에서 1회초 박병호의 스리런을 시작으로 3회 윤석민의 투런, 4회 스나이더의 솔로포, 5회 유한준·김민성의 솔로포 등 무려 홈런 5방을 날리며 13-4의 대승을 거뒀다.

특히 3회 윤석민이 날린 투런 홈런은 대형 장외홈런이었다. 하지만 윤석민의 장외 홈런 때문에 이날 대구구장을 찾은 한 야구팬의 선루프 차량이 파손되었다. 윤석민의 타구가 주차돼 있던 선루프 차량을 강타해 선루프가 박살이 났기 때문이다.

규정상 야구장에 주차한 차량은 날아든 타구에 파손이 되더라도 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강정호 2타점 적시타

추신수 사흘만에 멀티 히트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강정호는 2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313(99타수 31안타)으로 약간 내려갔다.

내야 땅볼과 삼진, 포수 뜬공으로 물러난 강정호는 3-2로 앞서던 7회 2사 만루 상황에서 맞은 마지막 타석에서 우중간으로 뻗어가는 안타를 날려 주자 2명을 불러들였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쐐기타로 5-2로 승리해 6연승을 달렸다. 강정호는 시즌 타점을 14개로 늘렸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로 세 경기 만에 멀티 히트를 쳤다. 시즌 타율은 0.239(163타수 39안타)로 약간 올랐다. 텍사스는 3-12로 크게 패해 연승 행진을 '7'에서 마감했다. /김민준기자

美 법무부, FIFA 뇌물의혹 14명 기소

블래터 회장도 소환 임박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뇌물수수가 관행화된 국제축구연맹(FIFA)에 대해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

FIFA 차기 회장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27일(현지시간) FIFA 고위직 7명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스위스 검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제프 블래터(79) FIFA 회장은 일단 칼날을 피했지만 소환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다.

미 법무부는 취리히에서 FIFA 관계자들이 체포되자 곧바로 14명의 명단을 공표하고 기소 방침을 밝혔다. 이들에게는 공갈, 온라인 금융사기, 돈세탁 공모, 탈세, 국외계좌 운영 등 47개 혐의가 적용됐다. 기소 대상자는 FIFA 고위직 9명, 미국과 남미 스포츠마케팅 회사 간부 4명, 그리고 뇌물수수 중재자 1명이다.

스포츠마케팅 회사 종사자들은 각급 국제축구대회에서 마케팅, 중계권 등을 따내기 위해 1억5000만 달러(1657억원)가 넘는 규모의 뇌물·리베이트를 FIFA 측에 건넸거나, 전달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이 수사를 주도하는 이유는 뇌물수수 모의 장소가 미국이었고, 돈이 오간 곳도 미국 은행을 통해서였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이들의 신병을 조만간 미국에 인도할 방침이지만 7명 가운데 6명이 이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준기자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

시사 English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은 국민의 의무인 군입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다만 어떻게 현명하게 다녀올 것인지를 대한민국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가기 위해서도 '스펙'을 쌓아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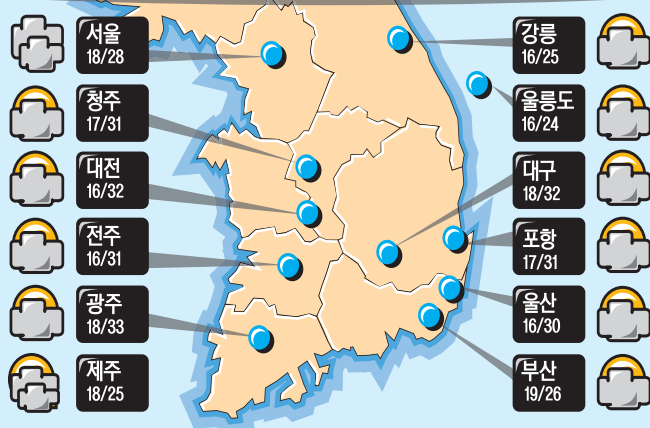
원하는 보직에 적당한 스펙을 쌓을수록 경쟁에서 이겨 입대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은 강변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병무청과 37사단은 지난달 28일 입대 장병 200여 명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입대 장병 가족들이 부대에서 지급될 군복과 군화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군 복무 중인 A씨(21)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대 들어가기까지 21번 떨어지고, 친구는 41번 떨어졌다'며 입영신청제도의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군 입대에 번번이 떨어지는 탓에 애꿎은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떨어지는 이유도 모른 채 지원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른 바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명목 하에 생겨난 '강요된 애국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무청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본인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며 논란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는 의미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은 성찰하지 못하고 도구 탓만 함을 이르는 말로써 '적반하장'과 비슷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제도를 두둔할 게 아니라 군 입대 상황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에서 곪은 상처는 언젠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입영문제 해결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정한 의미의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8					3		
	6			3		5		
	5			4				
2		6			5			
7			9		3			2
			8			4		7
				9			2	
		1		6			3	
		9					1	4

	6		8					
		2	7					4
			2	1		6	8	7
1	3							
		8	5		1	3		
							5	1
7	4	1		2	6			
9					8	4		
					9		1	

스도쿠 정답

1	8	2	6	5	7	3	4	9
9	6	4	2	3	8	5	7	1
3	5	7	1	4	9	2	6	8
2	9	6	4	7	5	1	8	3
7	4	8	9	1	3	6	5	2
5	1	3	8	2	6	4	9	7
4	7	5	3	9	1	8	2	6
8	2	1	7	6	4	9	3	5
6	3	9	5	8	2	7	1	4

3	6	7	8	9	4	1	2	5
8	1	2	7	6	5	9	3	4
5	9	4	2	1	3	6	8	7
1	3	5	9	8	7	2	4	6
6	2	8	5	4	1	3	7	9
4	7	9	6	3	2	8	5	1
7	4	1	3	2	6	5	9	8
9	5	3	1	7	8	4	6	2
2	8	6	4	5	9	7	1	3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남편이 직장 경력 발판으로 사업해도 될까요
능력은 탁월하지만 사업하면 재물 타격 입어

미소 얼굴 여자 77년 3월 12일 1시 30분
남자 77년 4월 7일 3시 30분

Q 사주 속으로 애독자입니다. 배우자는 제약회사 15년 경력으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인사업(제약 도매업)을 하고 싶다고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을지 사주 좀 봐주세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차리고 싶다는데 시기적으로도 괜찮을까요? 저 또한 워킹 맘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언제까지 일을 할까요? 일은 재미있는데 아이 둘(남매)을 생각하면 초등학교 1학년과 7살 연년생 남매라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 합니다. 항상 고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속 시원히 고민 좀 풀어주세요~^^

A 자신의 일이나 사업을 위해서는 급여생활 할 때보다도 3~10배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씀씀이 또한 늘게 되겠지요. '호랑이는 피할 수 있어도 사주팔자는 피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사주8자와 운의 흐름에 따라 그 사람의 길흉화복이 나타나는데 운칠기삼(運七氣三)이라는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인생을 운에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노력을 하면 운도 바꿀 수 있으니 열심히 하라는 말로 독려하지만 일이 안 될 때는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께서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자신이 생(生)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틀린 것인데 직업을 치는 손실의 상관(傷官)의 기세가 여과없이 표출되므로 구덕(口德)의 흠을 보여 재산상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침살(懸針殺:날카로운 기물을 다룸)로 제약계통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업을 하려면 편재(偏財: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은 것으로 비정기적인 재물의 취함을 나타냄)운이 승발 해야 하는데 현재는 절지(絶地:단절됨)로 되어 사업을 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한 탕화(湯火)로 자신을 비관 할 수 있습니다. 작게 벌어도 작지 않기에 서서히 재물의 기운이 나아지게 되므로 사주운세 상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는 생일시주(生日時柱)에 백호(白虎)는 혈광지사(血光之死)로서 살성(殺星)이 중첩되어 성정이 강하고 운이 좋으면 훌륭한 의사자식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재관(財官)백호는 부궁(夫宮:남편)이 무탈하게 되고 남이 부러워할 기이한 발 복도 따릅니다. 두 아이의 양육을 위해 전업 주부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이겠으나 먼 장래의 더 나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도 아기들의 공부를 살피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5월 29일 (음 4월 12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외지로 나가지 마세요. **60년생** 이익도 없고 고생만 하게 됩니다. **72년생** 소원을 이루기 어렵겠습니다. **84년생** 마음의 안정을 취하여라.

49년생 생각지도 않았던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61년생** 몸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73년생**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세요. **85년생** 남과 다투지 마세요.

50년생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62년생** 슬픈 일로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74년생** 바라는 꿈이 너무 허황된 것 같습니다. **86년생** 집안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51년생 독선에 빠질 수도 있을것입니다. **63년생** 서쪽으로 가면 길합니다. **75년생** 낭패만 당하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87년생** 길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52년생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터지는구나. **64년생** 광고를 열심히 한 만큼 물건은 많이 팔릴 것입니다. **76년생** 한 팔을 거들음이 이득이 됩니다. **88년생** 도움은 이득을 달고 옵니다.

53년생 먼저는 흉하고 뒤에는 길함을 얻게 됩니다. **65년생** 독한 면을 보임도 이득이 됩니다. **77년생** 속을 상하게 하는 자식이 나중엔 효자됩니다. **89년생** 현장 경험도 큰 도움이 됩니다.

54년생 분수에 맞는 투자를 하시길. **66년생**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 실속이 따릅니다. **78년생** 성에 안차니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90년생** 남자의 명예는 돈으로 살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55년생 사기 당하기 십상입니다. **67년생** 마음속의 근심은 태산입니다. **79년생** 지갑 조심 돈 조심 불량배를 조심하세요. **91년생**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운입니다.

56년생 문어발식 확장은 결국 공멸로 이어집니다. **68년생** 일을 벌릴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80년생** 명예도 높아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립니다. **92년생** 하루가 편안한 날입니다.

57년생 되도록 나서지 않는 것이 이득입니다. **69년생** 서류상의 문제라면 풀릴 기미가 보입니다. **81년생** 보험 등은 이득을 창출 합니다. **93년생** 명예를 양보하고 실리를 취함이 이득입니다.

58년생 만사형통합니다. **70년생**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82년생**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94년생** 애인과의 외출은 흉합니다.

59년생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71년생** 원대한 꿈이 이루어집니다. **83년생** 물리적인 충돌 사고가 나도 감정보다 법으로 해결하세요. **95년생** 애인과의 여행을 준비하세요.

언론의 이음새 기능 강화하는 '평가위'를 희망한다

최치선의 세상만사

28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연내에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도입하겠다는 소식이 언론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양대포털에서 각각 담당해 온 뉴스제휴심사를 새로 출범하는 평가위가 독립·종합적인 관점에서 하면 많은 매체에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매체 입장에서는 칼자루를 쥐게 될 평가위의 구성과 기준 등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는 평가위가 구성되면 신규 뉴스 제휴 심사를 진행하고, 기존 제휴 언론사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하고, 과도한 어뷰징 기사와 사이비 언론 행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양사의 희망과 달리 평가위의 출범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가장 큰 문제는 평가위에 들어가는 위원들의 인적 구성이고 그 다음이 제휴여부를 결정하게 될 기준이 무엇이냐이다.

양사는 평가위를 만들기 전에 준비위를 발족한다고 밝혔는데 준비위에 참여하게 될 구성원은 이번 제도 도입을 사전에 논의한 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언론학회와 언론재단 등 언론 유관기관들이라고 한다.

언론사의 자율적인 평가를 위해 마련한다는 평가위가 자칫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들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준비위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평가위 구성·평가 기준·평가 주기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전적으로 결정할 예정이어서 제휴를 원하는 매체들은 양사에 이어 이번엔 준비위의 눈치를 봐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2014년 말까지 등록된 간행물 1만8000여개의 매체 중 현재 양대포털에 들어간 매체는 1000여개 정도다. 여기서 '평가위'가 평가하게 될 매체 수는 양사의 제휴매체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터넷 언론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양대포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었고 수많은 매체들이 양대포털에 들어가고자 노력해 왔지만 기준을 충족시키는 일부만 제휴에 성공했다. 실제 양대포털에 기사가 노출돼야 광고주의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제휴를 원하는 매체가 증가할수록 포털의 힘은 상대적으로 커졌다. 매체는 양대포털의 제휴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을의 처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포털과 매체의 갑을관계는 또 다른 언론통제가 될 수 있기때문에 준비위는 평가위의 구성과 기준에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포털에서 뉴스를 서비스하기 전까지의 언론통제는 권력을 가진 정부와 광고를 집행하는 기업이 대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여기에 포털의 제휴가 더해져 이래저래 매체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현실에서 '평가위'는 언론사의 규모나 양이 아니라 좋은 기사를 생산하는 매체에 점수를 주는 쪽으로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 그렇게 정권이나 기업의 언론 길들이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을 평가위가 만든다면 언론의 이음새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평가위를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 정론을 펼쳐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빛나기 바란다.

/사회부장

세월호법에 발목 잡힌 5월국회

기자 수첩

김 서 이
<정치부 기자>

28일 세월호법 시행령에 5월국회가 발목 잡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이날 이번에도 처리에 실패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의 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또 정치권이 한묶음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 태도를 '구태의연한 발목 잡기'라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개혁의 강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감내하면서 '대타협'을 했는데도 새정치연합은 다른 요구를 줄줄이 꺼내들면서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정부와 청와대의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구성안에 명기하되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하고 야당과 잠정합의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 요구를 얹었고, 협상 끝에 유감 표명으로 매듭지으며 쟁점은 해소되는 듯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다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를 들고 나왔다.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도록 새누리당이 약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전날 심야까지 마라톤 회동을 하며 절충을 시도했지만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새누리당은 "해도 너무한다"며 폭발했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략적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5월 국회 막판까지 발목을 잡은 것은 개혁안 하나가 아니다. 이면에 존재하는 정권의 내부 다툼과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정계가 삼켜버린 대한민국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에게 개혁안을 요구하며 줄다리기만 하고있는 정권 다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불철주야 연금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이 비통해야할 이유다. 여론을 반영한다는 명목 하에 여론을 선동한다. 국회의 결정을 국민들은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내 돈 이동'의 향방은 오로지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시점이다.

#11 Park Geun-hye
+ Follow (34)
President, South Korea

Age	63
Residence	Seoul, South Korea
Citizenship	South Korea
Marital Status	Single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Sogang University

President Park Named Top 11th…Lee Bu Jin 100th by Forbes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was named the 11th and the CEO of Hotel Shilla Lee Bu Jin 100th most powerful woman in the world by Forbes magazine on Tuesday. President Park leaped from 46th last year to 11th this year and Lee is bringing up her reputation internationally by entering top 100 for the first time.

The magazine said Park oversees the world's 14th-largest economy in a nation bordering the nuclear-armed North Korea. And regardless to Sewolho's tragedy and bribery scandal, she made a contract with Canada FTA and environmental treaty with China and Japan.

About CEO Lee, they stated that she has played a greater role in Samsung while her father was hospitalized for a year. They added that she is the wealthiest woman in Korea who owns 3.9% share of Samsung SDS and 8% share of Jaeil Woolen fabric which adds up to 2.9 billion dollars in total.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포브스 선정 여성파워100인 朴대통령 11위, 이부진 100위

박근혜 대통령과 이부진 호텔신라사장이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1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에서 각각 11위와 100위를 차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46위에서 껑충 뛰어올랐고, 이 사장은 첫 진입이지만 올해 포브스의 집중 조명을 받을 만큼 국제적 위상이 부각되고 있다.

포브스는 26일(현지시간) 박 대통령에 대해 "성마르고 핵무기로 무장한 이웃(북한)을 두고 세계에서 14번째 경제대국을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총리 뇌물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한국경제도 덩달아 어려워지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중국·일본과는 환경협약을 체결했으며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장에 대해서는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년간 병원에 있는 동안 다른 남매들과 함께 광대한 삼성제국에서 더욱 큰 역할을 맡았다"며 "작은 이건희로 불리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또 삼성SDS 지분 3.9%와 제일모직 주식 약 8%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 최고 여성 부자라고 덧붙였다. 포브스는 이 사장의 재산을 29억 달러(3조2000억원)로 평가했다.

PAGODA

인사

■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승진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장 강병삼 ◇3급 승진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이창희 △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 강건기 ◇4급 승진 △연구기관지원팀 서기관 조경욱 △과학기술정책과 정재욱 △미래인재정책과 김주봉 △통신정책기획과 황큰별 △전파정책기획과 김보경 △기획재정담당관실 기술서기관 최문기 △원천기술과 정연웅 △창조경제기획과 김기석 △정보통신방송기반과 이희성 △소프트웨어정책과 남철기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진재관 △학원정책팀장 송은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근무 임광환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전보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최영수 ◇과장 승진 △부산사무소장 이병건

■ 법제처
◇부이사관 승진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장 권태웅 ◇과장급 승진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백종운 ◇과장급 전보 △행정법제국 법제관 류철호

■ 농촌 진흥청
◇ 부이사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박정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임대환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선준규 △고객지원담당관실 오관석 △운영지원과 최범석 ◇기술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지식정보화담당관실 이병연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장 오태환 △재무자문본부장 홍종성 △고객전략본부장 김태형 △산업연구본부장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 알렉스 조(조기훈)

■ 연합인포맥스
◇승진 △정보사업본부 부국장 류정원 △산업증권부 부국장 김경훈 △경매사업본부 부장 김홍기 △방송본부 부장 배상훈 △국제경제부 부장 이장원 △경영관리실 부장 정진희 △전산개발부 부장대우 박준식 △전산개발부 부장대우 배대현 △경영관리실 부장대우 신은정 △방송본부 차장대우 이세원

부고

▲ 최주열씨 별세, 최영철(SJ그룹 대표이사)·윤실·윤정씨 부친상, 임영노(외환은행 비서실장)씨 장인상, 김은성씨 시부상 = 28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02-3010-2000

▲ 임계근 씨 별세, 임추섭(코오롱워터앤에너지 경영지원본부장)씨 부친상= 28일 오후 4시, 강원도 속초시 보광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033-633-7444

▲ 이영자씨 별세, 박진현·정아·성아(보라매병원 근무)·진화(청담중학교 교사)·정훈(삼성전자 과장)씨 모친상, 이재태(외환은행 차장)·강희경(부산일보 기자)·하종성(LG전자 과장)씨 장모상, 김승연(삼성전자 과장)씨 시모상 = 27일 오후 8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9일 오전 5시30분. 02-2072-2018

2015 House View

시장을 먼저 읽어라

달러자산에 투자하라.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
해외투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정적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기술과 혁신의 중심인 미국은 1년이상 장기투자에서 가장 유망합니다.

달러를 이동하세요!

달러도 연 2.0% 수익률 (3개월 예치시, 세전, 2015.04.06기준, 달러가치 하락시 손실 발생 가능)

대신증권 달러RP 특별판매

대상: 개인고객(신규/기존)
한도: 개인별 1만$ ~ 50만$
수익률:연2.0% (기본수익률 연0.9% + 추가수익률 연1.1%)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 RP이율 적용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D RP 입금액은 달러화 표시 외화증권에 투자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판매회사 지급불능시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예탁된 유가증권(원금 105% 이상)을 보유 및 처분 가능) *USD RP는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수익률 변경 이전 매수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 매수시 약정한 수익률을 적용) *USD RP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SD RP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943호 (2015-04-28 ~ 2016-04-27)